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64호 【루계 제23381호】 주체100(2011)년 3월 5일 (토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사 설

우리 당의 토지건설업적을 빛내이며 농업생산에서 대혁신을 일으키자

오늘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신 6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해방후 토지개혁의 포성이 울리던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나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는 반만년력사에 있어보지 못한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지금 온 나라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토지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여 나라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당과 수령의 사회주의토지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알곡증산으로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시며 쌓아올리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빛내여나가며 수령님의 생전의 념원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토지는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재부이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터전이다. 토지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농민들의 사회계급적처지를 근본적으로 개변하고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유격구에서 토지문제해결의 빛나는 경험을 창조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해방후 주체35(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시였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준 력사적사변이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토지문제해결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리정표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토지개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대대로 내려오던 봉건적토지소유관계가 완전히 청산되고 부강조국건설의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근로하는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이 땅에 조국번영의 새봄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어버이의 불멸의 공적으로 끝없이 빛나고있다.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된 때로부터 65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나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토지건설에서 시대적본보기가 창조되고 우리 조국의 대지에서는 놀라운 전변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적인 농업협동화방침을 제시하시고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을 위한 불멸의 대강을 내놓으신것은 농촌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단계에 맞게 토지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시대적귀감으로 된다. 언제나 농민들속에 계시면서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을 내놓으시고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대자연개조사업을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거창한 변혁을 안아온 근본원천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농촌진지가 굳건히 다져지고 농촌경리발전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토지문제, 농촌문제해결의 빛나는 앞길을 열어놓으시여 우리 인민이 세세년년 행복을 누릴 만년터전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사회주의대지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토지건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여왔다.

어버이수령님의 농촌건설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선군시대 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이 나날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을 발기하시고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것은 사회주의토지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안아온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고있다. **김일성**조선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웅대한 토지건설설계도를 펼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주력으로 하는 강력한 토지정리력량을 꾸려주시고 찬눈비를 맞으시며 토지정리전투장을 쉬임없이 찾으시면서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짧은 기간에 토지정리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오랜 세월 남아있던 봉건적잔재가 완전히 없어지고 나라의 전반적토지가 사회주의규격포전으로 일신되였으며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비상히 강화되였다. 우리 나라의 토지를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전변시켜 어버이수령님의 평생소원을 풀어드리고 수령님의 토지건설업적을 후세에 길이 빛내일수 있게 하신것은 백두의 선군령장 **김정일**동지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위대한 애국업적이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농촌건설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백두삼천리벌을 비롯한 사회주의전야들이 감자농사, 두벌농사, 콩농사에서 대혁신을 안아오는 풍요한 대지로 변모되고 대규모의 자연흐름식물길이 련이어 건설되여 우리 나라에서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세계적인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이 일떠서 세인을 경탄시키고있다. 사나운 날바다를 길들여 조국의 대지를 넓힌 대계도의 기적은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신 사회주의조선에서만 일어날수 있는 사변이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이 위대한 진리가 선군시대의 대자연개조사업,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현실로 증명되고있다. 대고조의 불길속에 이룩된 이 자랑찬 성과들은 **김일성**조선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고 우리 인민에게 천만가지 행복을 다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토지개혁법령발포 65돐을 뜻깊게 기념하는 우리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토지건설의 위대한 전변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으며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농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갈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우리는 사회주의토지문제해결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하여온 우리 당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빛내이며 이 땅우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토지건설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우리 조국의 한치한치의 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린 귀중한 혁명의 전취물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이 어려있는 이 땅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세기를 이어 값높은 삶을 누려올수 있었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산천이 변해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은 영원불멸하다.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포전길을 걷고걸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땅을 귀중히 여기고 기름지게 가꾸어 위대한 수령님의 토지건설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 **김일성**동지의 후손으로서의 본분이 있다는것을 심장깊이 새기고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야 한다. 장군님 주신 땅을 귀중히 간직하게 하는 《밭갈이노래》를 높이 부르며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대대손손 칭송하고 후대들도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농촌건설구상과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의 념원을 활짝 꽃피워야 한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잘 지어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당의 웅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나라의 토지를 강성대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며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세심한 지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는 과학기술적, 물질적토대가 다 갖추어져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가 있고 선군의 길에서 마련된 농업발전의 튼튼한 토대가 있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전도는 양양하다.

우리는 토지정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공고히 하면서 모든 논밭들을 기계화포전, 규격포전으로 만들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지방별, 지대적,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토지의 지력을 부단히 높이며 작물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여 토지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전군중적운동으로 새땅을 찾아내기 위한 투쟁을 실속있게 벌려 부침땅면적을 대대적으로 늘이며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신념과 배짱으로 간석지개간전투를 본때있게 벌려 나라의 국토를 더욱 넓혀야 한다. 숭고한 공민적자각과 열렬한 애국심을 안고 토지보호사업에 큰 힘을 넣어 여러가지 자연피해로부터 나라의 귀중한 토지를 적극 보호하며 동해안지대와 서해안지대할것없이 어디서나 지대적조건과 특성,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토지를 부단히 개량하여 농업생산을 계통적으로 늘여야 한다.

농사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힘을 농사에 총동원, 총집중하여 올해 농업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쌀이자 국력이고 사회주의이다. 쌀이 많아야 군력도 더욱 강화할수 있고 강성대국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푸는것은 우리앞에 나선 절박한 과업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에 농사를 잘 지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농촌경리에 대한 공업의 물질기술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농촌에 전력과 비료, 기름과 뜨락또르부속품, 각종 영농설비와 자재들을 제때에 원만히 대주어야 한다. 전국가적으로, 전사회적으로 농촌에 대한 로력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당의 농업혁명방침,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든 영농작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현대과학기술과 선진영농방법을 우리 농업의 실정에 맞게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전국적으로 활발히 벌려야 한다. 벌방지대든 중간지대든 산간지대든 경쟁에 적극 뛰여들고 도, 시, 군들사이에, 협동농장안에서는 작업반, 분조들사이에 서로 경쟁을 벌려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농업지도기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협동농장들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강화하고 농장원들속에서 애국적열의와 성실한 로동생활기풍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농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모든 당일군들은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키기 위한 일대 사상공세를 벌리며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모두다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농업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이 땅우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빼루정계인사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빼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인 **김일성**주석탄생 100돐기념 아메리카지역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헤나로 레데스마 이스끼에따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올리는 선물이 2월 25일 빼루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과 빼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에서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빠벨 오브쌴니꼬브단장 겸 수석지휘자가 2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탄생일에 즈음하여 빼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에서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2월 25일 까떠 깜뽀스 론똡 빼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총서기가 리문규 빼루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전국의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 호응하는

평양시 농업근로자들의 궐기모임 진행

【평양 3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전국선군시대농근맹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이 전국의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 호응하는 평양시 농업근로자들의 궐기모임이 4일 평양체육관 광장에서 진행되였다.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량만길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전국선군시대농근맹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시내 농업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전국의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랑독된 다음 평양시농근맹위원장 허덕복, 만경대구역 칠골남새전문농장 관리위원장 조일순, 사동구역 오류남새전문협동농장 농장원 김창민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전국선군시대농근맹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의 호소문에 접한 평양시내 농근맹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가슴마다는 올해 농업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갈 열의로 끓어번지고있다고 말하였다.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해나가는데서 평양시가 앞장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농장들에서 알곡품종선택을 잘하고 선진영농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모든 영농작업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농촌기계화초병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농작물심기와 수확에서 적기를 보장하여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훨씬 높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당면하여 농사차비를 실속있게 하고 앞그루작물들에 대한 비배관리에 힘을 넣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농근맹조직들과 일군들은 동맹사업을 올해농사를 잘 짓는데로 지향시키고 농업근로자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농근맹조직들에서 구역, 군, 협동농장들사이, 작업반, 분조들사이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총화를 실속있게 함으로써 협동벌마다에 경쟁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함으로써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쌀로써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선군시대의 애국농민, 농민영웅이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사회주의경쟁요강이 발표되였다.

애국의 마음안고 봄철나무심기에 떨쳐나섰다

수종이 좋은 나무를 더 많이

황해남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무엇보다도 나무를 많이 심고 그 관리를 잘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황해남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뜨거운 조국애를 안고 봄철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이들은 식수절 하루동안에만도 도적으로 많은 면적에 수십만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산림조성사업은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라는것을 깊이 해설해주면서 봄철나무심기에로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도록 하고있다.

산림조성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는데 맞게 도의 산림부문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과 기술지도를 잘 짜고들고있다.

온 도가 봄철나무심기로 들끓고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당의 령도업적이 깃든 단위들, 일터와 거리, 산기슭에 나무를 기술적요구대로 정성껏 심고있다.

해주시에서 봄철나무심기를 잘하고있다. 시에서는 식수절에 수양산기슭에 세잎소나무를 비롯한 5만여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신광지구, 학현지구, 양지지구 등 지구별로 나누어 산림조성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운 시의 일군들이 기관, 기업소별로 나무심기를 위한 조직사업을 잘하고 나무모를 앞세워 생산보장하도록 하고있다. 나무심기에서는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의 일군들, 시원림사업소와 시량정사업소, 해주제분공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모범을 보이고있다.

벽성, 은률, 신천군들에서 나무모생산을 앞세우고 산림조성계획에 따라 많은 나무를 심고있다. 신천군에서는 식수절 하루동안에만도 3만여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신원, 배천, 연안군을 비롯한 도의 다른 군들에서도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수종이 좋은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조국강산을 푸른 숲 설레이는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하여 정성껏 나무를 심고있다. —문수봉혁명사적지에서— 김진명 찍음

수림화, 원림화계획을 현실성있게

강원도에서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강원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봄철나무심기에 한결같이 떨쳐나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봄철나무심기기간에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떨쳐나 많은 나무를 심도록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봄철산림조성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운데 기초하여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더 많이 심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시, 군들의 유원지와 공원, 거리와 마을들이 나무심기로 들끓고있다. 도급기관들에서는 도소재지에 있는 양묘장주변에 평양단풍나무와 창성이깔나무를 비롯한 2 500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거두었다.

원산시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진 송도원유원지와 시안의 여러곳에 평양뽀뿌라나무를 비롯한 근 4만 2 5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도안의 다른 시, 군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애국의 한마음안고 나무심기를 내밀어 이깔나무, 평양뽀뿌라나무를 비롯한 많은 나무를 정성껏 심었다. 문천시와 안변, 통천, 철원군의 근로자들이 식수절을 맞으며 많은 나무를 심었다.

특파기자 신천일

농촌지원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각 도, 시, 군당위원회들에서

봄철에 들어서면서 각 도, 시, 군당위원회들에서 농촌지원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업혁명을 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적보장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황해북도당위원회 일군들이 농촌지원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인 농업전선을 잘 도와주는것이 곧 농업생산을 늘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한 도당위원회의 일군들은 자신들부터 이 사업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은 금요로동을 비롯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의껏 마련한 영농물자들을 가지고 사회주의농촌들에 달려나가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지원하고있다.

도안의 시, 군당위원회의 역할이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다.

사리원시당위원회를 비롯한 시, 군당위원회의 일군들은 공장, 기업소들과 동, 인민반들에 나가 농촌지원의 중요성을 해설선전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대중의 정신력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이에 고무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걸이대, 삽을 비롯한 수십종의 중소농기구를 마련하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다.

농촌지원의 열풍은 황해남도에서도 세차게 일고있다.

황해남도당위원회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농사차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면서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로 탐구동원하여 농촌지원을 잘하도록 하고있다.

시, 군당위원회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들어가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누구나 파비닐과 파고무, 파철을 비롯한 유휴자재를 마련하는데 떨쳐나서게 하였다. 그리하여 비닐박막, 활창대를 비롯한 많은 영농물자들을 자체로 마련하여 사회주의농촌들에 보내줄수 있게 되였다.

배천군당위원회를 비롯한 도안의 군당위원회들에서는 군급기관 일군들의 가족들로 가족중대, 가족소대를 뭇고 농사조건이 제일 어려운 단위들에 나가 로력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잘하게 하고있다.

평안북도당위원회 일군들도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고있다.

도당위원회는 농촌지원사업의 중심을 영농물자보장에 두고 이 사업을 혁신적으로 진행해나가도록 아래단위 당조직들을 적극 발동하고있다.

신의주시, 구성시, 의주군당위원회들에서는 뜨락또르부속품과 운반기재, 각종 중소농기구들을 영농공정에 앞세워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량강도당위원회 일군들도 농촌지원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농촌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높이 세운 계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제때에 집행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혜산시당위원회 일군들은 농촌지원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많은 거름을 생산하고 중소농기구들을 마련하여 감자산지들에 보내주는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김정숙군, 김형직군, 김형권군, 대홍단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농촌지원사업의 목적과 중요성을 깊이있게 해설선전하여 이 사업에 누구나 스스로 참가하게 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밖에도 평양시와 평안남도, 자강도와 함경북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도와 시, 군당위원회일군들은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듦으로써 가는 곳마다에서 농촌지원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전경서

장군님과 CNC (2)

려명을 위하여

강성대국의 려명을 안아오실 그이의 구상은 CNC라는 세글자와 함께 흘러가고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998년부터 1999년사이에 자강도와 평안북도의 기계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그이께서 CNC화를 결심하신것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전략적구상에 따른것이라는것을 충분히 짐작할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기계공업을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우는것을 강성대국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크고작은 기계공장들을 돌아보시는 과정에 우리의 기계제작공업을 새시대의 지향에 맞게 갱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절감하시였다.

우리의 기계제작공업은 해방후 빈터에서 시작되였고 전후 재더미우에서 다시 솟쳐일어나 1만대공작기계만세까지 터친 위대한 승리의 력사를 가지고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부분적인 기술개건을 하였지만 그후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 기계설비들이 낡아지다보니 시대적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는것이 문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손금보듯 환히 꿰뚫어보시면서 일군들에게 기계공업을 갱신하지 않고서는 한발자국도 나갈수 없으며 기계공업을 갱신하는데서 기본은 CNC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경제강국건설이 중요하다는것,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전략적사업은 온 나라의 CNC화를 실현하는것이라는것, 인민경제의 CNC화를 실현하여야 적은 자원, 적은 로력, 적은 에네르기로 보다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할수 있다는것, 자원과 기술을 바꾸는 과정이 CNC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것 등 그 시기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선군시대 경제전략의 기초를 세워주는 중요한 지침들이였다.

그이께서는 우리가 건설하려는 경제강국은 지식경제형경제강국인것만큼 온 나라의 CNC화는 경제강국건설의 전략적사업이라는것을 생각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998년부터 여러 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CNC화를 위한 구체적방향과 과업들을 제시해주시였는데 그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 CNC화를 가까운 앞날에 실현하려면 단계를 바로 정해야 한다.

첫단계에서는 재래식 낡은 설비들을 CNC기계로 바꾸는 사업을 해야 한다. 이것은 설비갱신과 CNC화를 동시에 밀고나가는 첫걸음이다.

둘째단계에서는 1단계과업이 실현된 공장들에서 자동화된 유연생산구역을 형성하여야 한다.

셋째단계에서는 통합생산체계까지 실현하여야 한다.

— CNC설비도입대상을 바로 정하는것이 중요하다.

륜곽이 복잡하고 가공하기 까다로우며 정밀도에 대한 요구가 높은 제품, 오작이 많이 나고 로력이 많이 드는 공정부터 CNC를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적은 투자를 가지고 보다 큰 경제적실리를 얻게 하는 최선의 방도이다.

— CNC도입의 시범단위를 잘 정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

CNC화는 처음해보는 사업이므로 우리 일군들과 기술자들속에서 파악이 부족하다.

투자타산, 생산능력타산, 생산환경조성문제, 가공공정확립문제, 공구 및 부대품보장방법 등 수많은 기술경제적문제들이 제기되며 이런것들은 경험이 없이는 바로 할수가 없다. 따라서 시범단위를 잘 정하고 거기에서 모범을 창조한 다음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도입범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 CNC화를 전문적으로 맡아하는 단위인 련하기계관리국의 력량을 보강하고 그들의 역할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

CNC개발과 생산, 도입, 기술봉사전반을 보고있는 《련하》를 확장하고 살지워야 한다. 《련하》에 추가적인 비용도 보장해주어 경영활동을 할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련하기계》개발자들은 현대화의 앞장에 서있다는 자각을 가지고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 모든 일군들이 하루빨리 CNC기술의 패권을 쥘 각오로 신들메를 든든히 조여매고 나서야 한다.

눈보라속의 야전차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CNC에 대한 말이 나올 때마다 자주 추억하시는 말씀이 있다.

《…나는 지금도 고난의 행군시기 나라의 CNC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강도를 찾아가던 때의 일이 눈에 선합니다.

1998년 1월 자강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떠날 때 나에게는 얼마간의 돈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 돈으로 식량이 없어 고난을 겪고있는 인민들을 당장 먹여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민들이 고생하는것을 보면서도 앞을 내다보고 얼마 되지 않는 자금을 모두 현대화에 쓰기로 하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자금, 실로 그것은 피눈물의 사연을 안고있었다.

얼마 되지 않는 자금을 놓고 마음속에서는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 흘렀다고 하신 우리 장군님의 회고의 말씀은 눈보라속의 야전차에 대한 추억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용히 승용차문을 닫으시였다.

그리고 말씀하시였다.

《떠납시다!》

눈보라가 사납게 울부짖고있었다.

우—우— 북방의 골짜기들을 뒤흔드는 눈보라속을 달리는 야전차안에서 장군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나라의 금고는?

이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남모르게 간직하신 참으로 가슴미여지는 물음이였다.

얼마밖에 되지 않는 자금을 나라의 CNC화에 쓰실것을 결심하고 그이께서는 눈보라속으로 길을 떠나신것이였다.

《…그때 나의 머리속에는 전후복구건설시기 기계에서 밥이 나오는가고 떠벌이는 종파분자들에게 기계에서는 밥도 나오고 천도 나오고 별의별것들이 다 나온다고 하시던 수령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수령님의 그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추호도 흔들림없이 귀중한 자금을 CNC화에 돌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최첨단돌파전의 길을 걸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성스러운 추억속에는 언제나 CNC화의 고향인 자강도가 먼저 실린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98년으로부터 10여년의 세월이 흘러간 2010년 7월 30일 일군들에게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CNC화는 자강도에서 제일먼저 하였습니다. 천리마의 고향이 강선이라면 CNC화의 고향은 자강도입니다.》

CNC화의 고향은 자강도!

참으로 성스러운 력사의 추억이다.

눈보라를 헤치며 야전차가 달리던 그 강계길을 이어 우리 조국에 무엇이 태여났는가.

1998년 8월 31일, 지구우에 주체의 메아리를 높이 울리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가 발사되였다.

다계단운반로케트에 의하여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된 우리의 첫 인공지구위성,

우주를 평화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하며 실용위성발사를 위한 계산토대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력사적, 과학기술적사명을 수행한 《광명성1》호가 우리의 첨단과학기술의 성공작이라는것을 념두에 둘 때 아직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있는 하나의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다계단운반로케트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의 제작은 CNC공작기계가 없이는 완전히 불가능하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CNC가 있어 인공지구위성과 그 운반수단의 제작이 가능했다는것이다.

특히 다계단운반로케트에 들어가는 부분품들은 전부 CNC로 가공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것들이다. 그것도 일반표준형의 CNC기계가 아니라 고성능급의 다축CNC기계로써만 가공할수 있다.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이 순수 우주과학기구이든가 혹은 보다 더 복잡한 지구감시위성일수도 있다고까지 예언한 전문가들의 평가로 보더라도 이 위성을 자체로 제작하는데 대단한 기계기술이 도입되였다는것은 묻지 않고도 알수 있는 문제인것이다.

우리의 CNC는 이렇게 《광명성1》호와 뜻깊은 인연을 맺고있었다. 고도기술의 집합체인 첫 인공지구위성과 함께 조선의 첨단기술은 상승의 큰 발자국을 내짚게 되였던것이다.

5천년민족사의 새로운 궤도를 놓은 《광명성1》호밑에는 주체의 CNC기술이 별처럼 빛나고있다.

인공지구위성뿐이 아니였다. 조선의 무진막강한 군력과 21세기 사회주의경제의 기초에는 주체의 CNC기술이 별무리와도 같이 눈부시게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마누파뚜라》에 종지부를

2000년 5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날 어느 한 기업소의 설비들에 대한 료해사업을 진행하시였다.

현장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일군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시였다. 어느때건 인사말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시였다. 한초한초 흘러가는 시간이 천금보다 귀중한 장군님이시였다.

현장의 설비들을 돌아보시는 그이의 눈빛은 근엄하였다.

《설비가 락후합니다.》

심중한 어조였다.

《지금은 생산의 효률성을 중시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같은 전기를 쓰면서도 효률이 낮지 않습니까. 현대화하면 면적도 절반이상 남겠는데 기대들이 다 낡았습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결연하게 말씀하시였다.

《기계가공에 CNC기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빠른 걸음으로 다음현장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우람찬 대형기계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내가 오늘 생각되는것이 무엇인가. 자력갱생에 대한 개념을 바로가져야 하겠다는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장군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전후복구건설때는 빈터에서 시작하였지만 지금이야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기계들을 놓고 어떻게 오늘의 자력갱생을 말할수 있겠습니까.》

다른 현장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기술혁신을 했다는 기계설비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보시면서 거듭 말씀하시였다.

《이 공장에 빨리 CNC선반들을 도입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는 CNC공작기계들을 도입할 첫 대상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외국기술자들이 이 공장에서 형단조를 배웠다고 말한다고 하는데 내 보기에는 이것은 낡은 장비에 불과하다고 하시면서 여기에서 무슨 효률성을 말할수 있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이것은 과학성도 없고 대충 일하자는것이며 이런것이 바로 인해전술이라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말씀하시였다.

《련하기계공장에 가보시오. 거기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프로그람을 짜가지고 CNC기계를 척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 CNC라는 말도 모르고있습니다.》

이렇게 깨우쳐주시면서 공장의 일군들을 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래가지고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호평한다고 으쓱해서말이요.》라고 웃음비낀 롱조로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주눅이 들세라 마음을 눅잦혀주시는 사랑의 말씀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 다른 공정에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걸음을 옮기실수록 하시는 말씀은 더욱 절절하였다.

《여기도 역시 같습니다. 그전에 내가 수령님을 모시고왔을 때보다 기술적으로 발전한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조국에 첨단의 새 날개를 달아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모습이 일군들의 심장을 후덥게 하였다.

《오늘 장군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격정에 넘쳐 말씀드리는 공장의 일군을 보시면서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결정적으로 안됩니다. 이제는 확고히 새 기술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한시바삐 CNC화된 기계가공체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공장일군들은 눈물에 젖어 장군님을 우러르며 말씀올리였다.

《저희들의 사고가 너무 락후하였습니다. 전후복구건설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에 의하여 설비를 차려놓은 후 설비갱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눈앞이 확 트입니다. CNC공작기계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조국에 첨단의 새 아침이 환하게 밝아오고있었다.

《용기를 가지고 하시오》

2001년 2월이였다.

탄생일을 눈앞에 둔 시각에 북방의 어느 한 현장길을 걸으시는 장군님의 걸음은 무거웠다.

드넓은 현장에 기계라고는 몇대뿐이였다.

공장의 일군들이 새로 들여온 정밀기계라고 자랑하지만 그 기계 하나만 덩실하게 놓여진 현장은 보기만 해도 허전해보였던것이다.

장군님의 안색에서 모든것을 알아차린 중앙의 일군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였다.

《아직도 설비를 설치할 면적이 많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참동안 아무 말씀도 없이 현장길을 걸으시였다. 재래식 기계들이 가득 차있는 현장을 보실 때에도 그렇게 마음무거우시였던 장군님이시였다.

그런데 오늘은 텅 비여있는 현장을 보시니 무거운 걸음이 배가되는것만 같으셨다.

이제부터 해야 할 방대한 일들이 걸음걸음 그이의 눈앞에 펼쳐지고있었던것이다.

장군님께서는 조용히 되이시였다.

《면적은 운동장같은데 설비는 몇대 없고…》

그이께서는 몇걸음 가시여서 또 말씀하시였다.

《공장 두개도 들어갈수 있는 면적이 아닌가. …》

무겁게 하시는 그 말씀에 일군들의 가슴은 미여지는것만 같았다. 중앙의 일군이 장군님가까이에 다가서며 이렇게 말씀드리였다.

《장군님, 이제 시작이다나니 그렇습니다. 새 기계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야 맛을 보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시면서 말없이 머리만 끄덕이시였다. 중앙의 일군은 깊은 생각에 잠기신 장군님의 안색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또다시 말을 이었다.

《여기에 올 때마다 매번 면적이 휑한것을 느끼면서도 빨리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곧 투자도 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의 말을 들으시면서 계속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그러시고 낮은 음성으로 누구에게라없이 말씀하시였다.

《아직은 과도기니까…》

미래를 설계하시는 깊은 사색과 시련과 난관을 헤쳐갈 완강한 의지력이 함께 뒤섞인 숭엄한 빛이 그이의 안광에 흘러넘치고있었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장의 지배인을 보시면서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지배인, 용기를 가지고 하시오. 일없소.》

장군님께서는 지배인의 등을 두드려주시면서 다정히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가을에 다시 와서 보겠소.》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뜨거운 약속을 남기시며 공장을 떠나시였다.

천만고생을 각오하고 시작하신 CNC화의 길에서 우리 장군님께서 겪으신 불멸의 로고의 한 갈피를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오작을 모르는 CNC

어느해 2월 14일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기계공장의 현장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느 한 기대앞에서 기대공에게 물으시였다.

《오작이 몇%요?》

《5%입니다.》

5%라는 대답에 장군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오작이 5%라는것은 대단한것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재를 생산하는데 오작을 내면 안되지.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따뜻하게 깨우쳐주시였다.

《아직도 낡은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깎으니 오작이 안날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CNC시대입니다. 결정적으로 CNC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작을 없앨수 있소.》

오작을 모르는 CNC에 대한 새로운 표상을 세워주시는 말씀이였다.

(다음호에 계속)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신 위대한 은인

봄이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따라 강성대국건설의 거세찬 열풍이 몰아치는 이 땅우에 봄이 왔다.

봄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지금으로부터 65년전 3월 5일, 우리 인민이 해방된 조국땅에서 맞은 첫봄의 환희가 생생히 어려온다.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땅을 분여해주시였다!

조국해방이라는 민족사적경사에 토지개혁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사변을 맞이한 우리 농민들, 아니 온 나라 인민의 격정이 벅차게 안겨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십니다.》

20성상 피어린 항일대전을 벌리시여 찾아주신 이 땅우에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은 세월이 흐를수록 인민의 심금을 울린다.

험난한 건국의 초행길을 헤쳐야 했던 그 나날 토지개혁을 실시하시여 우리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내 나라, 내 조국이 영원히 부강번영할 만년터전을 마련해주신것은 위대하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력사적위업이다.

돌이켜보면 해방된 조국땅에 개선하신 우리 수령님앞에는 참으로 많은 일감들이 쌓여있었다. 먼저 당창건위업을 실현하시고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시여 우리 인민을 해방된 조선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개혁의 첫 사업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할 의지를 굳히시였다.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인 토지문제를 그들의 의사와 념원에 맞게 실현하시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하시였듯이 인민들속으로 들어가시였다.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형제산구역 신미동에도 뜻깊은 자욱을 새기시였다. 한 농가에 들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민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고 이곳의 토지실태와 지주들의 착취행위 그리고 농민 한사람당 토지관리능력과 3.7제투쟁정형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우리 농민들이 제땅이 없어 애써 지은 곡식을 지주들에게 다 빼앗기고 못살았는데 이제 제땅을 가지고 잘살아보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 지주들이 토지개혁을 반대하여 발악하고있는 조건에서 계급적각성을 높이고 경비를 강화하며 농민들을 농민조합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3.7제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등 토지개혁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이 고장을 찾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농민들에게 나라에서 주게 되는 땅을 받고 농사를 잘지어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꼭 보답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절세의 위인들의 그날의 현지지도는 토지개혁의 승리적전진을 더욱 추동하였다.

토지개혁을 위한 준비를 면밀히 갖추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3월 5일, 마침내 력사적인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다.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밑에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것을 토지개혁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하며 땅을 국가소유로 하지 않고 농민들의 개인소유로 할데 대한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은 오늘도 인민의 격찬속에 빛을 뿌린다.

토지개혁,

이 위대한 혁명은 우리 농민들을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되게 하고 착취와 압박의 근원으로 되였던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뿌리채 뽑아버린 력사적사변이였다.

항일의 나날 유격근거지들에서 농민들에게 땅을 분여해주시고 숙영의 깊은 밤 우등불가에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토지개혁의 구상을 한자한자 새겨가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토지개혁을 실시하시여 땅에 대한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이 하도 고마와 땅의 주인된 기쁨에 울고 웃으며 온 나라의 농민들과 인민들이 터친 그날의 환호성이 메아리쳐온다.

《김일성장군 만세!》

못 잊을 그 나날 대동군 시족면 성문리(당시)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 농민들의 피눈물나는 력사를 다 들어주시였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주집과 집세간살이등속을 이 집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한분들에게 드리자고 하시며 문패에 친히 지주집머슴살이로 잔뼈가 굵은 박장반농민의 이름을 쓰시고 달아주시였다. 그리고 그가 분여받은 땅에 그의 이름이 새겨진 표말까지 세워주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그날의 문패는 천만의 심장속에 영원히 수호하고 빛내일 영원한 주인의 문패로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토지개혁은 불과 2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가장 철저히 수행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으로 땅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은 마침내 실현되였다.

잊지 못할 65년전의 그 봄날과 더불어 혁명의 년대들마다에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문제, 농민문제해결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여 농촌문제해결의 위대한 대강을 인민에게 안겨주시였다. 한평생 농장길, 포전길을 걷고걸으시며 사회주의농촌건설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은덕을 인민은 영원히 못 잊는다.

우리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부강번영의 만년터전을 굳건히 다지신 어버이수령님의 업적은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아래 더욱 빛나고있다.

토지정리,

이는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대소한의 강추위계절에 평안북도토지정리전투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이 펼친 토지정리사업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이 땅을 진정한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그 면모를 일신하고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며 토지의 면모와 구조를 일신시켜 봉건적토지소유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하나의 혁명이라고 고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정력적인 령도로 토지정리의 세기적위업을 실현하시여 후손만대가 복락을 누릴 사회주의대지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에서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을 그대로 뵙고있다.

사회주의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재부중의 재부이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를 이어 꽃피워가시는 김일성민족의 륭성번영의 영원한 터전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빛내여가시는 이 땅우에 강성대국의 새봄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인선

우리 농민들을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조선혁명박물관에서— 본사기자 장청일 찍음

선군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켜

수풍발전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켜 전력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우선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선군사상학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주별, 월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당세포,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이 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다.

또한 일군들이 아래단위들을 맡고 내려가 대중에게 선군사상의 본질과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독창성과 생활력에 대하여 깊이있게 해설해주도록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얼마전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1발전직장의 전력생산자들속에 들어간 초급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당보에 실린 선군혁명령도의 위대성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해설을 진행하였다.

산업의 동력이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한 고리인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선군시대 로동계급의 본분을 다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자는 그의 열렬한 호소는 대중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로농통신원 리춘명

⁂ ⁂

개성건재생산협동조합 당조직에서는 당원들과 종업원들속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선군혁명령도의 나날에 새겨진 가슴뜨거운 혁명일화들과 자료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그를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현실과 결부하여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과 선동원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위대성선전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얼마전 생산현장에 나간 당조직의 한 일군은 종업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작업의 쉴참을 리용하여 당보에 실린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소식을 가지고 해설선전사업을 진행하였다.

감동깊은 자료와 결부하여 실감있게 이야기하는 그의 정치사업은 대중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본사기자

당의 웅대한 토지건설구상을 꽃피워갈 드높은 열의

천만년 길이 빛날 천지개벽의 새 력사

천지개벽의 새 력사가 펼쳐진 선군조국의 대지에 봄이 왔다.

얼마나 깊은 추억을 불러오는 봄인가.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력사적인 토지개혁으로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덕이 고마와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높이 울리던 만세의 환호소리가 메아리치는듯 싶다. 천지개벽의 새 력사가 펼쳐진 드넓은 벌에 나서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어오신 선군혁명령도의 길이 뜨겁게 안겨와 눈굽이 젖어든다.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발포기념일을 맞는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와 더불어 세기에 세기를 이어가며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이 꽃피는 사회주의대지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긍지높이 펼쳐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해방후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우리 농민들을 중세기적인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하였으며 제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는 그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시켜주었다.》

돌이켜보면 이 땅에 얼마나 하많은 추억이 새겨졌던가. 해방전 제땅 한뙈기가 없어 귀한 자식을 굶겨죽여야 했던 우리 농민들이였다. 땅이 없어 대대로 소작살이, 머슴살이를 하면서 이른봄부터 가대기를 끌며 농사를 짓고도 가을에는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우리 인민이였다.

그러했던 이 땅에 해방직후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되였다.

토지개혁법령발포, 그것은 원한의 피눈물로 절던 이 땅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나라 농업력사의 빛나는 첫걸음이 시작되였다는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선언이였다. 그것은 우리 나라 농촌에 세기적인 전변의 새 력사가 시작된 위대한 사변이였다.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해 어버이수령님께서 걷고걸으신 농촌길은 그 얼마이며 우리 장군님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시기 위해 이어오신 선군장정의 그 길은 또 얼마이던가.

일찌기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길을 헤치시며 일제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민문제, 농업문제해결을 선차적인 문제로 보시고 토지문제를 빛나게 해결해주시였다.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성과적수행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더불어 우리 나라의 농촌에서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밑에 토지개혁이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힘있게 추진되였다.

오늘도 대동군 성삼리 사람들은 잊지 못한다. 토지개혁의 실태를 알아보시기 위해 험한 진창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몸소 어느 한 마을을 찾으시여 리의 한 일군의 거치른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어버이수령님, 진정 토지개혁의 기쁨이 넘치던 그 나날 어버이수령님께서 걸으신 그 길에서 얼마나 많은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꽃펴났던가.

잊을수 없는 력사의 그날부터 세월은 흘러 오늘 우리의 농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봉건적토지소유의 잔재로 남아있던 올망졸망한 뙈기논밭들은 자취를 감추고 대규모의 규격포전들이 펼쳐진 이 땅에 자연흐름식물길들이 뻗어나가 생명수 흘러넘치고있다. 포전들마다에서는 기계화의 동음이 울리고 산기슭들에는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들어앉아 우리 나라 농촌은 말그대로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되였다.

하기에 태천군의 한 일군은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한드레벌의 지평선을 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어떻게 오늘의 한드레벌을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렇지 않으랴. 돌이켜보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주의기치를 들었던 나라들이 붉은기를 내리우자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고립압살의 도수를 더욱 높이였다. 우리 인민은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되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백두의 담력과 배짱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이 땅을 더욱더 보란듯이 천지개벽시키실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강원도에서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알리는 불도젤들의 발동소리가 높이 울리기 시작하였다. 강원도땅에서 시작된 토지정리사업은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평안남도, 평양시, 남포시에로 이어져 이 땅에 봉건적토지소유의 잔재로 남아있던 올망졸망한 뙈기논밭들이 자취를 감추고 대규모의 규격포전들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에 따라 개천—태성호물길과 백마—철산물길, 미루벌물길이 우리 식 관개체계의 본보기로 건설되였으니 이 땅은 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이 땅에 대규모의 자연흐름식물길들이 건설되여 우리 나라의 농촌이 더욱 몰라보게 변모된것은 물론 알곡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하기에 오늘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은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천만년 길이 빛내여갈 드높은 결의로 가슴을 끓이며 봄철영농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김 창 길

「위대한 전변, 자랑찬 현실」

우리 식의 독특한 자연흐름식관개체계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 관개건설력사에 없었던 자연흐름식물길들이 도처에 건설되여 농업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주체91(2002)년 10월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개천—태성호물길이 대규모자연흐름식관개체계의 본보기로 건설된데 이어 백마—철산물길과 미루벌물길이 성과적으로 완공되여 수리화의 위력이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이 물길들이 건설되여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 평안북도, 황해북도의 여러 군들에서 많은 전기를 쓰지 않고 관개용수를 보장하고있다.

이 물길들만이 아니다. 황해남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비롯한 도처의 농촌들에 실정에 맞는 자연흐름식물길들이 생겨나 은을 내고있다.

기계화의 동음 높이 울리는 농장벌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위대한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사회주의대지에 기계화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있다.

저 멀리 백두삼천리벌 대홍단군의 가는 곳마다에서 기계화단의 힘찬 발동소리가 대지를 진감하고 감자농사열풍이 몰아치고있다. 지난날 산짐승들의 울부짖음만이 들리던 이곳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덕으로 농기계들의 발동소리가 높이 울리고있으니 이 얼마나 희한한 일인가.

어찌 대홍단군뿐이랴.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반적인 농촌들에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놀라운 전변을 안아왔다. 룡천군 신암, 태천군 은흥,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마운 은덕을 노래하며 사회주의대지에 기계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사회주의선경을 노래하는 문화농촌

최근 몇해동안에만도 전국적으로 수많은 농촌살림집들이 새로 건설되였다. 그 어느 농촌에 가보아도 새 마을, 새 살림집에 대한 자랑을 들을수 있다. 당의 은정속에 선군시대의 무릉도원으로 훌륭하게 펼쳐진 서흥군 범안리만 보아도 그렇다.

양지바른 산기슭에 문패를 척 내건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마을뒤산에는 과일나무숲이 펼쳐져있으며 앞벌에는 규모있는 논판들과 양어장이 있어 그야말로 선경이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은 또 얼마나 몰라보게 변모되였는가.

자강도, 함경남도, 평안남도를 비롯한 각지의 여러 농촌마을들에서는 자체로 건설한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로 밥도 지어먹고 방안온도도 보장하고있다.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훌륭하게 꾸려진 농촌살림집들마다에서는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여나고있다.

본사기자 박 철

한드레벌의 미더운 주인들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

요즘 한드레벌은 더욱더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다. 흙깔이전투가 고조를 이룬것이다.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알곡증산성과로 본보기농장의 영예를 빛내일 일념을 안고 논흙깔이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통이 크게 궁리하고 높은 목표를 내걸어야 제기된 과업을 혁명적으로 해제낄수 있으며 일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올해 정보당 1 000t씩의 흙깔이를 할 목표를 세웠다. 방대한 과제였다. 하지만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심장은 본보기농장의 영예를 더욱 빛내일 각오로 뜨겁게 고동치였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해방전 가난과 피눈물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한드레벌을 선군시대와 더불어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한드레벌로 천지개벽시켜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눈보라 휘몰아치던 10여년전 1월의 그날에 이어 무더위가 한창이던 여름날과 한해농사가 마무리되던 마가을날에도 농장을 찾고 찾으시여 전국의 본보기가 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보답의 한마음안고 흙깔이전투를 벌려나갔다.

그러던 어느날 원토장에 울리던 굴착기의 동음이 갑자기 멎었다. 현장에서 기술협의회가 열리였다. 하지만 농장의 기술력량으로는 굴착기를 살려낼수 없었다.

이때 관리위원장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흙깔이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기어이 흙깔이목표를 수행하여 본보기농장의 영예를 더욱 빛내입시다.》

일군들은 신심에 넘쳐 창발적인 의견들을 내놓았다. 굴착기수리는 해당 부문 기술자들의 방조를 받아 하며 그 기간 곡괭이와 정대, 함마로 흙을 까내여 흙깔이를 중단없이 내밀자는 안에 모두가 찬성해나섰다.

사실 얼어붙은 흙을 까내는것은 어려운 일이였다. 하지만 방도는 그 길밖에 없었다.

제2작업반의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곡괭이와 함마, 정대를 들고 원토장에 남먼저 나섰다. 흙깔이성과이자 올해농사성과이라고, 아무리 조건이 불리하다고 해도 흙깔이는 중단할수 없다고 하면서 떨쳐나선 이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았다.

흙깔이전투가 며칠째 계속되던 어느날이였다. 이날도 이른아침 원토장으로 향하던 농장원들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분명 원토장에서 굴착기의 동음이 들려오는것이였다. 전날까지만 해도 숨을 죽이였던 굴착기의 발동소리가 옳다는것을 알게 된 농장원들은 저마다 환성을 올리며 원토장으로 달려갔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농장일군들의 호소에 감동된 해당 부문의 기술자들은 흙깔이성과여부가 굴착기를 살려내는가 못내는가 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낮과 밤이 따로없이 긴장한 전투를 벌리였다. …

모든 사연을 알게 된 농장원들이 뜨거운것을 삼키며 일손을 잡았다. 굴착기와 뜨락또르들의 발동소리가 더 높이 울리였다. 흙깔이성과가 급속히 확대되였다.

날이 갈수록 더 높이 올리는 흙깔이전투장의 발동소리, 정녕 그것은 알곡증산성과로 본보기농장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려는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심장의 박동소리였다.

본사기자

선군시대 사회주의땅답게 전변된 협동벌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젊어지는 사회주의대지

땅의 주인! 이 얼마나 환희와 기쁨에 넘치게 하는 말인가. 하기에 오늘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뜻깊은 력사의 그날을 추억하며 이 땅에 새겨진 천지개벽의 력사를 더듬어보고있다.

주체87(1998)년 5월 끊임없는 전선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창도군 대백리의 이름없는 논머리에서 토지정리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잊을수 없는 력사의 그날로부터 우리 농촌에서는 수십만정보의 토지가 대규모기계화포전으로 전변되고 수천정보의 새땅이 생겨나는 일대 사변이 일어났다.

어찌 그뿐이랴.

백두산기슭의 포태등판을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정리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속에 뙈기밭들이 자취를 감추었고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신흥군에서도 몇해동안에 수백정보의 밭을 정리하여 수십정보의 새땅을 찾아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라선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백만㎥의 토량을 처리하고 연 100여리의 물길, 여러개의 양수장, 수십개소의 구조물을 건설하여 수천정보의 땅을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전변시켰다.

나날이 젊어지는 사회주의조국의 협동벌!

인민을 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떠나 어찌 오늘의 이 천지개벽을 생각이나 할수 있으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만년대계를 위한 거창한 대자연개조구상을 펼치시고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토지정리전투를 조직령도하시였다. 그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적인 토지정리사상과 방침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신데 이어 토지정리와 관련하여 수많은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토지정리규모와 력량동원, 설비와 자재보장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대책도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토지정리전투장에 거룩한 현지지도의 자욱을 새기신 그 날과 달은 또 얼마였던가.

그렇다. 고난의 력사가 흘러간 오늘 조국의 대지가 젊어지고있는 이 희한한 현실은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자랑스러운 결실이다.

본사기자 황 연 옥

단상 일군의 어깨

며칠전 재령광산에 대한 취재길에서였다.

광산의 당일군은 올해의 높이 세운 철광석생산목표를 점령하자면 한번 본때있게 달려보아야 할것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끝을 맺었다.

《우리 일군들의 어깨우에 짐이 많이 실릴수록 대고조진군속도가 더욱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일군들의 무거운 어깨와 높은 진군속도,

이렇게 되뇌여보느라니 생각이 깊어졌다.

일반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면 걸음은 떠지기마련이다.

그런데 일군들의 어깨우에 무거운 짐이 실릴수록 진군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게 된다는 말은 얼마나 깊은 의미를 시사해주는것인가.

일군들의 어깨우에 실리는 짐이 무거울수록 그것은 위력한 정치사업이 되여 대중을 불러일으키며 단위사업의 실적으로 나타난다는것을 나는 취재과정에 더욱 생동하게 체험하게 되였다.

—어려운 모퉁이에 남먼저 들이대는 어깨,

—남보다 무거운 짐을 지는 어깨,

우리 일군들의 어깨가 바로 이렇게 불리워질 때 대중은 그런 일군들을 따라 더욱더 산악같이 떨쳐나서게 될것이며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 총공세의 박차를 끊임없이 가하며 대고조진군속도를 부쩍 높이게 될것이다.

그러니 어찌 우리 일군들의 어깨를 단순히 육체의 한 부분이라고만 할수 있으랴.

그것은 바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받드는 억센 주추돌이고 선군혁명총진군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가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비약의 도약대가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리 종 석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석탄생산에서 누구나 위훈의 창조자가 될 결의에 넘쳐있다. —남덕탄광에서— 본사기자 찍음

기술력량의 잠재력은 어떻게 발휘되였는가

2중3대혁명붉은기 평양화장품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기술력량의 잠재력은 어떻게 발휘되였는가.

얼마전 2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평양화장품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이 이에 대한 좋은 대답을 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같은 병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 서로 다른 약을 써야 고칠수 있는것처럼 사상사업도 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하여야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공장의 계획수행률은 평균 158.8%이다.

그 비결에 대하여 공장종업원들은 이렇게 말한다.

《기술자들의 힘이 이렇게 큰줄 몰랐습니다. 그들의 힘이자 곧 공장의 힘이더군요.》

기술자들이 발동되여 이룩된 성과라는것이다. 옳은 말이다.

공장기술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세수비누페액정화공정을 꾸려 막대한 량의 글리세린과 소금을 회수하여 생산에 리용하게 하였다. 지난해에도 이들은 경영활동의 정보화, 과학화와 수십건의 기술혁신안을 실현하여 생산능력을 훨씬 높이였다.

지난 3년동안 공장기술자대렬에서의 변화는 크게 없었다.

그러면 오늘에 와서 이들의 사업의욕과 창조기풍이 비상히 높아진 까닭은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분석해보려는 문제가 있다.

최성애동무가 초급당비서로 임명되여왔을 때 공장의 기술발전사업은 비교적 잘되고있었다.

8년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공장을 찾으시여 공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고 질경쟁을 할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신 그날부터 누구나 기술발전에 더욱더 관심을 돌려왔던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종전과 같이 밀고나갔다. 해설담화, 강연회, 학습, 가정방문…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치약작업반에 나갔던 초급당일군은 오광국동무의 열성이 전같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되였다.

그로 말하면 이삭기방지용치약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기능성치약제품들을 개발한데 이어 나노아연복합체치약, 나노은치약개발을 맡아나선 기술자였다.

초급당일군은 오광국동무를 만났다.

《요사이 집에서 무슨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초급당일군의 물음에 한동안 대답이 없던 그가 심정을 터놓았다.

《사실 제 실력으로는 안되겠습니다. 나노분야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초급당일군은 생각하였다. 물론 나노아연복합체치약이나 나노은치약개발이 이미 개발한 제품들에 비하여 높은 지식을 요구하는것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그에 앞서 그에게 부족한것은 세계와 겨루어보겠다는 경쟁심과 자존심이였다.

이것이 단지 그에게서만 나타나는 편향이겠는가?

초급당일군은 기사장 김현동무를 만나 담화를 심화시켰다. 이 과정에 초급당일군은 한가지 문제점을 포착하게 되였다. 공장의 대다수기술자들이 세계와의 과학기술경쟁은 과학연구기관의 과학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있는것이였다.

초급당일군의 생각은 깊었다.

과학기술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 그것이 국력을 좌우하는 관건적인 요인으로까지 되고있는 오늘 세계와의 과학기술경쟁에 나설 인재가 따로 있단 말인가.

그날 공장에서는 초급당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열리였다. 모임에서 초급당일군은 말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술자들이 자기의 능력을 다 내도록 사업을 짜고들지 못하였습니다. 경쟁속에 보다 빠른 발전이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세계와의 기술경쟁에 뛰여들도록 심장에 불을 달 때 그들의 정신력이 최대로 분출될수 있다고 봅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기술자들속에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의 진수를 깊이 인식시키면서 화장품공업발전추세를 알려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과 국가과학원 경공업과학분원 과학자들의 초빙강의도 여러차례 조직하였고 인민대학습당과 중앙과학기술통보사와의 밀접한 련계밑에 최신과학기술자료들을 제때에 받아보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세웠다. 이와 함께 기술자들을 시안의 상점들에 내보내여 공장제품에 대한 인민들의 반영도 듣도록 하였다.

이것은 기술자들특유의 자존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되였다. 우리도 남만 못지 않으며 그 이상의것도 해낼수 있다는 자존심은 그들로 하여금 지난 시기의 기술혁신사업을 비판적으로 돌이켜보게 하였고 기술혁명결의목표를 한계단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도록 추동하였다.

기술자들속에서 대담한 기술혁신과제들이 제기되였다. 공장안에 창조열풍이 몰아쳤다.

이러한 때인 지난해 2월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기술자들에게 매달 마지막날을 기술혁신과제총화의 날로 정한다는것을 알려주었다.

다달이 번지지 않고 드팀없이 진행되는 총화모임을 통하여 기술자들이 느끼는바는 자못 컸다.

모임을 통하여 기술혁신과제수행이 초급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더욱 전환되여 기술혁신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가 진지하게 토의되였고 기술혁신에 앞장선 기술자, 기능공들이 높이 평가되였다.

공장구내에 전개된 직관판에는 기술자들의 이름이 오르지 않을 때가 없었다.

《오광국동무, 나노아연복합체치약개발의 돌파구를 열었다!》

《차정순동무, 투명세수비누생산의 기술준비 완성!》

…

기술혁신과제총화모임은 점차 실력총화, 실력경쟁의 마당으로 되였다. 모든 연구조건을 당, 행정에서 전적으로 보장해주고있는 조건에서 연구과제수행에서의 차이는 곧 실력의 차이로밖에 인정될수 없었던것이다.

결국 기술혁신과제총화모임은 기술자들의 경쟁심을 더욱 분발시키는 공간으로 되였다.

기술자들사이의 실력경쟁은 더 많은 기술혁신성과로 이어져 증산의 불길을 안아왔다. 세계와 겨루어보려는 그들의 야심은 첨단수준의 새 제품개발과 기술공정확립으로 이어졌다. 이에 기초하여 공장에서는 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전개하였다.

이 나날 종업원들은 공장의 잠재력은 곧 기술의 힘, 기술자들에게 있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였고 그들을 없어서는 안될 보배로 떠받들게 되였다.

지식이 지식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공장의 기술자, 로동자들이 어제는 생각할수 없었던 과학기술성과들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기술경쟁, 실력경쟁의 불길속에서 이미 소유하였던 지식에 기초하여 더 높은 실력을 쌓고 적극 활용한데 있다.

결국 공장초급당위원회에서는 기술경쟁, 실력경쟁의 된바람을 일으켜 기술력량의 잠재력이 최대로 발휘되게 하였다.

이 공장 초급당위원회사업이 시사해주는 문제가 있다. 대중의 정신력발동에서 대상의 특성에 맞는 중심고리를 틀어쥘 때 그 실효는 백배해진다는것이다.

본사기자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집단의 신념과 전투력으로

조선인민군 전수관소속부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워야 합니다.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충실성만이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으로 될수 있습니다.》

김성주소학교는 주체36(1947)년 7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경애하는 장군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과 함께 몸소 찾아오시여 해방된 조국에서의 교육사업발전방향을 환히 밝혀주신 뜻깊은 학교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61(1972)년 9월 또다시 학교를 찾으시여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관련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백두산3대장군의 거룩한 자욱이 깃들어있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이 모셔져있는 영광의 교정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교장 정혜순동무를 비롯한 교직원들이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학교를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있던 지난해 9월 어느날이였다. 뜻밖에도 공춘화, 량세일동무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전수관소속부대 아래단위 일군들이 학교에 나타났다.

《학교지붕이 마음에 걸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공춘화동무가 하는 말에 교장은 저으기 놀랐다.

당시 학교에서는 건물들의 지붕을 새로 씌우는 문제가 일정에 올라있었다. 바로 그러한 때 조선인민군 전수관소속부대에서 학교에 찾아온것이였다. 거기엔 가슴뜨거운 사연이 있었다.

지난해 공춘화동무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전수관소속부대 아래단위 일군들은 임무수행과정에 김성주소학교곁을 지나게 되였다. 김성주소학교가 어떤 단위인가를 잘 알고있는 그들은 교정의 나무 한그루, 건물의 창문 하나도 무심히 스치지 않았다. 그러던 그들의 눈길이 학교지붕에 가 멎었다. 첫눈에도 해씌운지 오래된것이라는것이 알렸다. 그들은 선뜻 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자신의 한평생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불멸의 령도자욱이 깃들어있고 우리 장군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학교를 더 잘 꾸리는것은 학교의 주인들만이 아닌 우리모두의 신성한 의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그들은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지난해의 뜻깊은 그날에 약속이나 한듯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우리 혁명의 승리가 있고 우리 조국의 빛나는 어제와 오늘, 찬란한 래일이 있다.

—백두산3대장군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는것은 우리 혁명의 생명이고 우리모두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량심이고 의리이다.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수도의 김성주소학교를 더 잘 꾸리는데 우리도 떨쳐나서자!

그날의 자리에서는 이런 말들이 불을 토하듯 쏟아지였다. 모두의 생각은 한결으로 흘렀다.

온 집단이 떨쳐나섰다. 부대 당조직에서도 그들을 적극 지지하였다.

령도업적단위의 건물지붕을 새로 해씌우는 문제도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대하고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심장을 활활 불태우면서 그들은 즉시 김성주소학교를 찾았다.

《조선인민군 전수관소속부대 아래단위 일군들이 우리 학교를 다녀간 며칠후였습니다. 질좋은 지붕재를 가득 실은 화물자동차들이 학교마당에 와닿고 이어 기중기차까지 들어서는것이였습니다. 동시에 지붕공사를 직접 맡아할것을 결심한 부대의 아래단위 성원들이 학교로 달려왔습니다.》

우리와 만난 정혜순동무는 이렇게 말하며 잊을수 없는 공사의 나날들을 뜨겁게 더듬었다.

지붕씌우기공사량은 방대하였다. 두채의 학교건물에 2 000여㎡에 달하는 지붕을 새로 씌워야 했고 낡은 구조물도 해체하여야 하였다. 더구나 경사각도가 35°인 옥상에 지붕을 씌우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으로서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한달이라는 기일이 요구되였다. 그러나 부대에서는 10월 10일전으로 학교의 지붕씌우기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전무결하게 끝낼 결심을 안고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공사는 백두산3대장군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일뿐아니라 당창건 65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여러가지 경축행사들이 진행될 수도의 중심부를 더 환하게 꾸리고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이기도 하다. 공사의 질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자!

—낮과 밤이 따로없는 공격전을 벌려 하루빨리 지붕씌우기공사를 끝내여 학교에서 당창건 65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하자!

공사장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련이어 터져나왔다.

돌격대가 조직되였다. 지붕씌우기공사는 낮에 밤을 이어 맹렬하게 진행되였다.

청년동맹일군인 김청림동무 그리고 한금혁동무를 비롯한 돌격대원들은 집단과 힘을 합쳐 공사에 필요한 2 000여㎡의 지붕용철판과 각종 기공구들을 제기일에 책임적으로 보장한 기세로 작업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몇해전 큰물피해복구사업에 참가하여 숭고한 조국애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한 그 나날처럼 한금혁, 홍승섭동무들이 지붕씌우기공사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작업을 맡아 전투적으로 해내고 있을 때 리금철, 양철식, 홍영수, 박평길, 황명렬 등 동무들은 안전바줄을 몸에 두르고 높이가 수십m에 달하는 건물의 지붕에 올라 한치밖에 되지 않는 턱에 의지하여 허공에 뜬것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낡은 구조물을 해체하기 위해 함마를 힘차게 휘둘렀다. 김윤철, 조광철, 정웅 등 동무들이 학교의 주위환경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하여 낡은 구조물해체과정에 생긴 많은 버럭을 마대전을 벌려 운반하면서 가파로운 지붕에 하루에도 수십번씩 오르내릴 때 김경삼, 김정호, 림정남동무를 비롯한 돌격대원들은 한밤중에도 공사장을 뜨지 않고 미끄러운 지붕철판우에서 못박기작업을 기술공법의 요구대로 책임적으로 해나갔다.

박영진, 리덕수, 박철옥, 김은하, 안정아, 최영순동무를 비롯한 많은 동무들도 공사장에 달려나와 물심량면의 지원사업으로 동지들을 힘있게 고무해주었다.

공사의 전기간 돌격대원들의 앞장에는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집단을 이끄는 량세일, 김철순, 공춘화동무와 같은 미더운 일군들이 서있었다.

밤새 이슬이 가득 내려 몹시 미끄러운 철판지붕을 위험을 무릅쓰고 걸레로 닦아내며 한발자국 또 한발자국 전진하면서 지붕고정못을 박아나가던 그 아침들에, 이쪽 건물지붕에 쌓인 지붕재를 저쪽 건물지붕으로 옮기는 일을 바람이 세차 기중기를 리용하지 못하고 순수 사람의 힘으로 해야 하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작업이 진행되던 그 밤들에 그들모두의 가슴에 더욱 세차게 타번진것은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백두산3대장군의 후대들에 대한 사랑과 은정을 길이 전하고 이 땅의 방방곡곡에 깃들어있는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만대에 빛내여가려는 열화와 같은 충정과 억척같은 의지였다.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집단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신념과 강한 전투력을 떨치며 조선인민군 전수관소속부대 아래단위에서는 학교지붕씌우기공사를 불과 5일만에 완전히 끝내였다.

우리 인민군부대들의 막강한 전투력에 비추어볼 때 한 학교의 지붕씌우기공사는 별로 큰 일은 아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 군대의 참모습이 크게 비껴있다.

공사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도와주러 나왔던 시안의 어느 한 단위 로동자들은 훌륭히 완공된 수천㎡의 학교건물들의 지붕을 보고 이런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기들보다 일솜씨가 더 낫다고 하면서 이처럼 지붕씌우기공사를 단 며칠만에 높은 수준에서 완성한 전수관소속부대를 통하여 우리 인민군대의 정신상태와 전투력에 다시금 크게 감탄하게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학교지붕씌우기공사의 나날에 수령결사옹위의 제1선에 서있는 우리 인민군대의 고결한 정신세계와 혁명적인 투쟁기풍, 깐진 일본새, 인민들을 위하는 뜨거운 마음을 직접 체험하게 된 김성주소학교 교직원들과 학부형들 역시 감동을 금치 못하면서 이곳 부대를 두고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부대, 선군시대의 본보기단위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옹위정신이 꽉 들어찬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에 휩싸이였다.

조선인민군 전수관소속부대에서는 이처럼 백두산3대장군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김성주소학교를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도와줌으로써 우리 인민군대가 지니고있는 투철한 혁명적수령관과 수령결사옹위의 투쟁기풍을 뜨겁게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길에서 부대가 발휘한 훌륭한 소행을 료해하시고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조선인민군 전수관소속부대의 훌륭한 소행은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한 신념으로 지닌 우리 인민군대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에 대한 또 하나의 시위로 된다. 바로 이런 군대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 조국이 강하고 우리의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는것이다.

본사기자 박 철

황해남도지질조사단에서

다시 그린 설계도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세우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얼마전 황해남도지질조사단을 찾았던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두해사이에 지질조사단의 모습이 몰라보게 달라졌던것이다.

나지막한 언덕우에 훌륭하게 일떠세운 종합청사며 건축형식과 색갈이 조화를 이루며 규모있게 들어앉은 건물들, 번듯하게 꾸려진 야외휴식터와 배구장, 건물들을 포근히 감싸안은 과일나무들…

파릇파릇 새싹이 움트기 시작한 따스한 봄계절의 청신함이 함뿍 어린 지질조사단의 전경은 한폭의 그림같았다.

단장의 방에 들어서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 토론에 열중하고있었다. 이미 낯을 익힌 허성렬, 홍만길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이 올해 조사단의 꾸리기계획을 두고 의견을 나누던 중이였다. 그 모습을 보느라니 두해전에 목격하였던 광경이 떠올랐다.

그때에도 단장의 방에서는 새로 지을 종합집짐승우리설계를 두고 협의회가 진행되고있었다. 실력있는 설계원이 작성한 설계인지라 일군들은 저마끔 정말 멋쟁이라고, 훌륭하다고 하면서 당장 건설을 시작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단장 리계선동무의 생각은 달랐다. 잠시 생각에 잠기였던 그는 말하였다.

《좀더 사색을 기울여 조사단이 위치한 지대적특성에 맞으면서도 손색이 없는 종합집짐승우리를 세워봅시다.》

그러면서 단장은 단층짜리 건물을 여러동 짓지 말고 언덕을 리용하여 2층짜리 건물을 세우는것이 어떻겠는가, 1층에는 온실과 돼지우리를, 2층에는 버섯재배장을 꾸리자, 그러면 건설의 질과 속도를 보장하는것은 물론 땅속의 열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고 자기의 속궁냥을 터놓았다.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도 철저한 실리에 기초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군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하지만 종합집짐승우리건설을 위해 단장이 건축과 축산에 대한 지식을 쌓는 한편 축산기지를 잘 꾸린 여러 단위들에 찾아가 성과와 경험을 배우며 새로운 착상을 무르익혀왔다는것을 다는 알수 없었다.

이렇게 되여 설계도면은 다시 그려지게 되였으며 새롭고 독특한 형식의 종합집짐승우리가 짧은 기간에 현대적으로 일떠서게 되였다.

생필중대와 건설중대를 비롯하여 조사단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자기의 일터를 선군시대의 맛이 나게 꾸리기 위해 바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타는 열정과 헌신적노력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였다.

짧은 기간에 일터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해 지새운 밤은 그 얼마이며 다시 그린 설계도면들은 그 얼마였으랴. 거기에는 무엇을 하나 건설해도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이 훌륭하게 일떠세우려는 부원 김관수, 소장 오명희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혁신적인 일본새와 뜨거운 애국의 마음이 아름답게 비껴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자기 단위에서부터 현실로 꽃피워갈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열렬한 지향과 불같은 열의에 받들려 나날이 새롭게 변모될 황해남도지질조사단의 래일의 모습을 그려보며 우리는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리 은 남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세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올린 선물식물들에 꽃이 만발하였다. —중앙식물원에서— 본사기자 리 명 남 찍음

거리와 마을, 일터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과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것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얼마전 평양시인민위원회에서는 봄철위생월간선포모임이 있었다.

모임에서는 봄철위생월간에 수행하여야 할 과업들이 지적되고 이 사업의 성과적 추진을 위한 력량이 조직되였으며 구체적인 분공조직사업이 진행되였다.

이어 시인민위원회 책임일군의 힘있는 목소리가 참가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모든 사업에서 다 그러하지만 곧 시작되게 될 봄철위생월간사업에서도 평양시가 본보기가 되여야 하며 수도시민들이 앞장에 서야 한다.

책임일군의 호소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위생월간사업이 단순히 생활환경과 생산환경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한 실무적사업이 아니라 절세의 위인들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중요하고도 영예로운 사업이며 수도가 마땅히 전국의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는 자각을 다시금 깊이 심어주었다.

지금 평양시의 그 어느 구역, 그 어느 단위에서나 봄철위생월간에 수도의 면모를 다시한번 일신시키기 위한 된바람이 불고있다. 위생월간사업내용에 맞게 시위생지도위원회 해당 성원들과 시인민위원회의 모든 일군들은 자기가 맡은 단위들에 내려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선포모임에서 토론된 내용과 봄철위생월간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있게 해설해주는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월간사업내용을 제시해주던 종전의 사업방법이 아니라 당의 의도와 요구를 파악한데 기초하여 모든 사업이 실속있게 집행되도록 대상을 바로 정하고 혁신적인 일본새로 일판을 벌려나가고있다.

봄철위생월간사업을 조직하고 진행해나가는 평양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의 저녁퇴근길이 달라졌다. 시위생지도위원회 해당 성원들은 위원회청사밖에 꾸려놓은 현장사무실로 그리고 그밖의 일군들은 자기가 담당한 지구나 단위들을 찾고있다. 위원회책임일군들은 현장사무실을 찾아 해당 성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봄철위생월간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현실적인 대책들을 세워주고있다. 이들은 해당 성원들의 분공수행정형과 구역, 군위생지도위원회들의 사업도 구체적으로 료해하면서 봄철위생월간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우리와 만난 시인민위원회 국장 정현동무는 봄철위생월간사업에 떨쳐나선 일군들의 관점과 일본새에서부터 혁신이 일어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모든 일군들이 하루를 열흘맞잡이로 여기고 사색하며 실천해가고있습니다. 누구나 그날 계획한 일은 끝장을 보고야 퇴근하고있습니다.》

시인민위원회일군들은 구역, 군위생지도위원회들과의 련계를 긴밀히 하면서 봄철위생월간사업의 첫 단계에서부터 성과를 올리기 위해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일군들은 도시경영, 상업, 급양, 교육, 보건, 농촌경리 등 자기가 맡은 부문들에서 본보기를 창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지의 일군들과 함께 실속있게 밀고나가고있다. 한번 가서 안되면 두번, 세번 걸음을 해가며 책임적으로 이끌어주고있다.

벌써 시안의 많은 단위들에서 본보기들이 창조되고있다.

거리와 마을, 일터를 더욱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올해의 봄철위생월간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평양시인민위원회 일군들과 시민들의 드높은 열정과 애국적헌신속에 수도의 면모는 보다 훌륭히 변모될것이다.

본사기자 오 현

수도의 면모를 일신시킬 불타는 열정

평양시인민위원회에서

군중적인 사업으로

구성시위생방역소에서

봄철위생월간을 맞은 구성시가 끓고있다.

최용남, 리학철동무를 비롯한 시위생방역소의 일군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위생방역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잘 알고 봄철위생월간사업의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있다.

방역소에서는 위생방역을 대중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하였다.

봄철에는 눈석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원인에 의한 물의 오염으로 질병들이 발생할수 있는 계절적특성이 있다.

이에 맞게 방역소에서는 위생선전의 중심을 여기에 두고 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웠다.

과장들인 장승남, 홍정만동무를 비롯한 방역일군들은 눈석이물이 수원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것과 함께 주에 1차씩 수도물과 수원지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주변환경을 깨끗이 꾸리기 위한 사업도 전투적으로 벌리고있다.

겨울에 파손된 울타리보수와 도랑치기,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회칠하거나 정리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농장들에서 영농기전으로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들을 본보기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해당 단위 일군들과의 련계밑에 성과적으로 진척되고있다.

또한 시안의 곳곳에서 유해물잡이가 군중적으로 힘있게 진행되고 농촌들에서는 겨울난 병해충을 박멸하기 위한 사업이 일제히 벌어지고있다.

구성시의 거리와 마을, 일터들에서는 위생문화적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고있다.

본사기자 방 경 찬

겨울난 흔적을 말끔히

봄철위생월간을 맞은 **만포시 고개동 일군들과 주민들**이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을 알뜰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아직 추위가 가셔지지 않았지만 동안의 곳곳에 있는 공공위생시설물들의 보수와 물도랑치기, 주변정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동일군들이 남먼저 동안의 구석구석을 밟으며 료해사업을 앞세운데 기초하여 정해진 대상들에 대한 위생문화사업이 실속있게 벌어지고있다.

자기가 사는 고향마을을 더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사업에 주민들은 경쟁적으로 떨쳐나서고있다. 인민반별로 도로와 주변의 물도랑 등에 대한 정리작업과 함께 집안팎을 보다 위생문화적으로 깨끗이 꾸리기 위한 사업이 활기있게 벌어지고있다.

동일군들과 주민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봄철위생월간이 시작되여 하루이틀사이에 동안의 곳곳에 있는 공공위생시설물들에 대한 보수와 정리작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이곳 일군들과 주민들은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봄철위생월간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수필

봄향기

봄날의 출근길은 항상 즐거운 법이다. 만물을 소생시키는 불가항력, 그로 하여 느끼게 되는 생의 희열이 어느 계절보다 강렬하기때문이리라.

가슴이 부푸는 봄의 정서를 한껏 느끼며 출근길을 다그쳐온 어제 아침이였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부서동무들이 신문을 펼쳐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평양남새과학연구소와 평양화초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이 실린 신문이였다.

나는 급히 다가가 신문을 받아들었다. 순간 저도모르게 환성이 터져나왔다.

꽃속에서 환히 웃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사진이 눈앞에 안겨왔던것이다.

얼마나 환하게 웃고계시는지 금방 경애하는 장군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리는듯 싶었다.

가슴속에는 뜨거운 격정이 파도쳤다. 무엇때문이였던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이 오늘처럼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높은 긍지와 자부심,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은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은 깊어졌다.

얼마전 취재길에서 만났던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일군의 말이 떠올랐다.

우리 장군님의 안중에는 인민, 인민밖에 없다고,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는 연구성과는 더 크게 여겨주시며 인민생활과 직접 련관되여있는 분야여서 생물공학의 최첨단세계에 대한 설명도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 그 모습에서 진정 인민의 어버이의 모습을 보았다고…

그날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였다.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과 관련되여있는 농산, 과수, 식료공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그날뿐이였던가.

동해안에 펼쳐진 소금밭을 바라보시며, 원흥땅에 솟아난 과수의 바다를 보시며 온 세상이 들리도록 밝게 웃으시던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온 나라에 대경사를 안아온 비날론폭포앞에서, 주체비료가 흰눈같이 쏟아지는 정경앞에서 세상이 환하도록 웃으시던 우리 장군님,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인민들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 영광을 드리고싶은것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 마음으로 바치신 로고는 다 가슴속에 묻어두시고 인민이 누릴 행복이 커질 때마다 누구보다 기뻐하신 우리 장군님께서 오늘은 화초연구소의 활짝 핀 꽃을 보시며 그렇게도 만족해하시였다.

이제 우리 장군님 기뻐하신 그 웃음과 함께 우리 인민에게 또 하나의 행복이 안겨질것이 아닌가. 행복의 웃음넘치는 마을마다, 집집의 창가마다 향기그윽한 꽃들이 피고 수도 평양은 물론 온 나라가 그윽한 꽃향기속에 묻히리라.

마중오는 행복을 두고 흥분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다가오는 행복에 대한 환희때문만이라면 나의 가슴속에 그렇듯 뜨거운 격정이 솟구치지 않았을것이다.

우리를 마중해오는 행복의 꽃은 남들과 같은 조건에서 피는것이 아니다. 지금도 남조선에서는 북침을 노린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에 의해 광란적으로 강행되고있다.

꽃과 불구름!

불구름밑에서는 그 어떤 꽃도 필수 없다.

그러면 이 땅에 흐르는 꽃향기, 봄의 향기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가장 위대한 정의와 평화의 수호자이신 우리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헌신으로 불타는 심장에서 뿜어져나오는 사랑의 향기이다.

그래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온대도 내 조국땅에는 언제나 행복의 향기만이 차넘치리라는 확신으로 하여 나의 가슴은 불덩어리마냥 뜨겁게 달아올랐다.

본사기자 림 현 숙

술쯔세계투자유한공사 총재가 떠나갔다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초청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술쯔세계투자유한공사 총재 가브리엘 데이비드 고틀리에브 술쯔가 4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3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농업기술적대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업생산은 시기성을 요구하는것만큼 농사에서 적기적작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기상수문국의 통보에 의하면 3월 상순부터 중순기간에 우리 나라는 약해지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을것으로 예견된다고 한다.

평균기온을 보면 상순에는 평양시,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함경남북도, 강원도에서 —1.8~1.2℃이고 자강도, 량강도에서는 —7.4~—3.2℃로서 평년보다 1.0℃정도 낮고 중순에는 평양시,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함경남북도, 강원도에서 1.3~4.4℃이고 자강도, 량강도에서는 —2.6~0.8℃로서 평년보다 약간 높을것으로 예견된다고 한다.

강수량은 상순에는 전반적지방에서 1~9㎜로서 평년보다 2~9㎜정도 적고 중순에는 전반적지방에서 3~9㎜로서 평년정도이며 지난해에 비하여 17~59㎜정도 적을것으로 보고있다.

해비침률은 전반적지방에서 60%정도로서 평년보다 약간 낮을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한 주요농작물비배관리대책은 다음과 같다.

논벼농사에서는 올해에 예견되는 기상조건에서 소출을 높일수 있는 중요한 방도가 평당 출발대수와 모내기적기를 보장하는데 있는것만큼 3월 상순과 중순기간에 모기르기공정계획을 면밀히 세우며 벼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씨앗고르기와 소독, 모판준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자체의 로력으로 질좋은 벼모를 충분히 확보하고 모내기를 제때에 끝낼수 있도록 모기르기공정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늦종과 중간늦종(1대잡종벼 포함)들은 랭상모인 경우에 5월말까지 모내기를 끝내야 정보당 소출을 높일수 있다. 중간종, 중간올종들은 6월 상순에 모내기할 때 소출이 높았다.

모판을 모종류에 따라 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모기르기와 모내기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실정에 맞게 물잡이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

땅이 녹는 차제로 봄갈이를 일찍 하여야 한다.

벼모판과 본답에 쓸 농약준비를 잘하여야 한다.

벼농사의 과학화, 기계화를 위한 농기계들의 개조 및 정비와 농기구개조작업을 미리 추진시켜야 한다.

동해안지방에서는 여름철에 예견되는 랭해를 막고 높은 소출을 내기 위한 대책을 미리 잘 세워야 한다.

가을밀, 보리농사에서는 되살이률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비배관리를 하여야 한다.

토양부풀음현상에 의하여 뿌리가 끊어지는것을 막고 가물피해를 받지 않도록 밀, 보리밭 다져주기를 잘하며 해당 지대의 되살이시기에 맞게 되살이비료를 제때에 주어야 한다.

봄밀, 보리농사에서는 싹나온률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씨뿌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적지를 바로 정하되 특히 논에서는 물빼기와 영농물자수송에 편리한 포전을 적지로 하여야 한다. 씨앗고르기와 해빛에 의한 말리기, 씨앗소독과 처리를 질적으로 하고 씨뿌리기를 잘하여야 한다. 해당 지방에서 밀, 보리씨뿌리기는 토양온도가 1~3℃(대기온도 0.5~1℃)되는 시기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씨앗묻는 깊이는 토양물기가 충분한 경우에는 3㎝정도로, 가무는 경우 5~7㎝정도 보장하여야 한다.

평지대 감자농사에서는 감자의 싹틔우기와 랭상처리, 거름내기, 토양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감자의 싹은 3㎜정도 되게 충분히 틔워야 한다.

감자의 랭상처리에서는 처리모판을 정해진 규격대로 만들고 바닥에 랭기차단재료로 벼짚을 5㎝정도 깔며 그우에 거름과 흙을 6:4로 섞은것을 5㎝정도 펴고 감자종자를 한벌로 펴놓은 다음 복토재료로 1.5~2㎝정도 덮고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모판안의 온도를 낮에 싹이 나오기 전에는 25~30℃, 싹이 10%정도 나오면 20~25℃, 싹이 다 나오면 20℃아래로 보장하며 밤에는 6℃이상 보장하여야 한다. 모판물기가 70~80%보다 적으면 물을 보충해주어야 한다.

땅이 녹으면 봄갈이를 하고 수평고루기를 하며 감자를 심기 3일전에 이랑을 짓고 토양물기를 최대로 유지하여 가물을 타지 않고 싹트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과학원 실장 배 룡 철

선군으로 평화와 자주통일의 앞길을 열어주시여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해치고 전조선반도를 지배하려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소동은 날로 악랄해지고있다. 이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항시적으로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새 전쟁발발의 위험은 날로 커가고있다. 하지만 내외호전세력의 침략적도전을 무적의 힘으로 단호히 짓부셔버리시며 강성대국건설위업과 조국통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시는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조선반도의 평화는 굳건히 수호되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는 온 세상에 떨쳐지고있다.

세계가 우러르는 백두의 천출명장을 민족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에 북받쳐오를수록 자주적민족의 존엄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해 걷고 또 걸으시는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 선군장정을 온 겨레는 뜨거운 격정속에 되새겨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도 혁명의 승리적전진도 선군정치에 의해서만 확고히 담보될수 있습니다.》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한 인민은 기필코 불행과 재난을 면할수 없으며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게 된다는 것은 력사가 주는 피의 교훈이다.

우리는 류례없이 간고했던 20세기의 마지막년대를 잊을수 없다. 적지 않은 나라와 민족들이 미국의 군사적강권과 전횡에 굽어들고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련이어 붕괴되였다. 청천벽력같은 민족사의 대국상과 련이은 자연재해…

그것을 기화로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려는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반동들의 책동은 얼마나 악랄하였던가.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기어이 해치려고 불순한 핵소동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남조선통치배들은 제국주의련합세력과 야합하여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전쟁의 불뭉치를 미친듯이 휘둘렀다.

세계는 우려의 눈길로 조선을 주시하였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의 기치를 조국수호의 보검으로 높이 드시고 세기의 풍랑을 과감히 맞받아나가심으로써 원쑤들의 침략책동은 여지없이 분쇄되게 되였다.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였던 그 최악의 역경속에서 총 한방 쏘지 않고 조국의 존엄과 운명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지켜내신것은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동지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세계사적업적이였다. 인류는 역경을 과감히 헤치시며 승리만을 떨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꼭같으신 또 한분의 탁월한 령장의 모습을 보았으며 우리 겨레는 자신들이 누리는 장군복, 선군복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페부로 절감하였다.

1990년대말 서방의 출판물들에는 제2의 조선침략전쟁계획이라고 하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작전계획 5027》이 뻐젓이 공개되였다. 작전에 참가할 병력수와 무장장비들의 종류, 수량, 전쟁도발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화된 북침작전계획의 공개는 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냈다. 그것은 우리 공화국을 기어이 침략하고 우리 인민을 노예로 만들려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침략기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원쑤들은 오산하였다. 전쟁광신자들의 공갈과 위협에 수그러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내외호전광들의 무모한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릴 철의 의지를 천명하시였다.

며칠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 《우리의 혁명무력은 미제침략군의 도전에 추호도 용서없이 섬멸적인 타격으로 대답할것이다》가 발표되였다.

성명은 세계적으로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세계의 언론들은 《조선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배짱과 담력으로 체질화된 강의한 나라이며 자주의 보검으로 미국을 매번 쓰러뜨리는 진짜 초대강국이다.》, 《이라크전쟁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미국이 〈가공소재〉가 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무쇠마치〉가 미국이라는 〈소재〉를 마음대로 두들겨때려 가공하고있다.》고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다.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우리 당의 선군정치로선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

이 강철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며 사회주의위업,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 헤치신 선군혁명 천만리길은 그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들로 수놓아져있는것인가. 철령, 오성산, 판문점, 초도, 351고지와 1211고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국수호의 위대한 신념과 의지로 이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로고와 헌신이 있어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은 튼튼히 담보되고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전환적국면이 열려졌다.

2000년 6월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진행되고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였으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해나가는 격동적인 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제국주의침략세력이 제아무리 발광해도 우리 민족은 선군의 보호속에 평화를 마음껏 누리며 세계를 놀래우는 조국통일위업의 사변적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하였다. 6.15통일시대의 힘찬 전진과 북남관계의 획기적전진은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모두에게 드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남녘겨레들은 이렇게 격조높이 웨친다.

《세계최강의 선군정치! 우리 민족이 자랑스럽다. 북의 선군정치는 지난날 힘이 없어 강대국에 휘둘리며 살아왔던 약소민족의 설음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민족이 세계에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것을 선언한 력사적사변이다. 선군정치로하여 우리 민족이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화려하게 등장한것이다. 선군정치는 우리 민족을 부흥케 하고 조국통일을 안아오는 21세기의 초강법이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책동으로 하여 언제 또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그 어떤 두려움도 모른다.

불세출의 선군령장께서 우리 민족의 진두에 서계시기에 내 나라의 하늘은 영원히 푸를것이며 선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김일성**민족의 앞길에는 반드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희망찬 미래가 펼쳐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향 미

허무맹랑한 말장난

지난 1일 남조선당국자가 그 무슨 《기념사》라는것을 하면서 북남대화문제를 입에 올리였다. 그는 《같은 민족》이니, 《열린 마음》이니 하면서 《대화할 준비가 되여있다.》는 소리를 하면서도 《핵과 미싸일》이니, 《무력도발》이니 하며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들었다. 지어 《통일에 대비한 력량축적》을 운운하며 《제도통일》야망을 다시금 드러냈다. 보다싶이 남조선당국자의 말은 앞뒤가 다른 모순투성이이다. 이것은 그가 진심으로 우리와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바라는가 하는것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게 한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북침선제공격을 가상한 위험천만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대화와 전쟁연습은 근본적으로 상반된다. 더우기 이번 전쟁연습은 그 누구의 《대량살상무기의 제거》와 《급변사태》에 대비한다고 하는 류례없이 도발적인 불장난이다. 이런 침략소동을 벌리면서 대화를 하자고 하면 과연 그 누가 그것을 곧이듣겠는가. 남조선당국자가 우리를 반대하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면서 《같은 민족》이니, 《대화》니 하는것이야말로 위선자의 허무맹랑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남조선당국에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제의하였다. 우리의 대화제의에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다. 단지 악화된 북남관계를 시급히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 진정만이 있을뿐이다.

하지만 남조선집권세력은 우리의 성의와 노력을 애초부터 무시하였다. 그들은 《책임있는 조치》니 뭐니 하는 부당한 조건부를 고집스럽게 내걸며 모처럼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서슴없이 차버렸다. 지금도 남조선당국자들은 그 어떤 대화노력도 보여주지 않고있다. 그들은 대화는 고사하고 우리의 평화적인 핵활동을 집요하게 걸고들며 외세와 함께 반공화국핵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한편 모략적인 《추가도발》설을 요란히 내돌리며 군사적대결과 긴장격화책동에 피눈이 되고있다.

이번 《기념사》에서도 남조선당국자는 대화를 방해하는 전제조건들을 하나도 거두지 않았다. 오히려 《핵과 미싸일》, 《무력도발》 등 구태의연한 대결폭언들을 늘어놓으며 우리를 반대하는 핵소동과 전쟁도발책동을 강화할 속심을 내비쳤다. 더우기 그는 《통일에 대비한 력량축적》을 떠들어댐으로써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며 어리석게도 《급변사태》를 꿈꾸는 체제대결기도를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열린 마음》이니, 《대화할 준비》니 하였으니 이것을 어찌 어불성설이라 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남조선당국자의 연설에서는 대화에 대한 그 어떤 진정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의 언동은 대화를 파탄시킨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북침전쟁연습책동에 대한 내외의 규탄여론을 잠재우기 위한것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백마디 말보다 한가지의 실천행동이 중요하다. 말로만 대화를 아무리 외워야 무슨 필요가 있는가. 말은 그만두고 행동하면 되는것이다.

남조선당국자가 진심으로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외세와의 전쟁연습을 중지하고 대결정책을 철회하며 우리의 대화제의에 조건없이 응해나와야 한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지켜볼것이다.

최 철 순

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할것을 주장

남조선의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한민족운동단체련합》을 비롯한 150여개 단체들이 3.1인민봉기 92돐에 즈음하여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기념식을 가지고 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할것을 주장하였다.

기념식에서 발언자들은 3.1인민봉기의 민족자주정신을 통일정신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민족대단합으로 자주통일을 이룩할것을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담화

지금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무모한 반민족대결책동으로 북남사이의 모든 접촉과 래왕을 가로막고있는 가운데 민간단체들사이에 진행해오던 모사통신련계마저 차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을 뜯어고치면서 남조선민간단체들이 북에 모사전송을 하지 못하게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피뢰통일부는 지난 2월말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3.1인민봉기 92돐을 맞으며 발표할 북남녀성단체들의 공동선언문협의를 위해 우리와의 통신련계를 가지려는것까지 차단하였다.

피뢰패당의 이러한 행위는 과거 군부파쑈독재시기 남조선인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막으며 지어 통일이라는 말만 해도 무자비하게 감옥에 잡아가두던 때와 조금도 다를바 없는 극악한 반인권적, 반통일적범죄이다.

국제적으로 서신거래의 자유가 초보적인 인권상식으로 되고있는 오늘 피뢰패당이 북남민간단체들사이의 통신련계마저 전면차단한것은 국제통신거래규범에 비추어보아도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불법무도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이로써 피뢰통일부는 민족의 화합과 평화, 통일은커녕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고 오직 동족대결과 반통일모략만을 일삼는 역적집단이라는것을 더욱 명백히 드러내보였다.

피뢰패당은 집권이후 지난 3년간 동족대결의식을 전례없이 고취하면서 6.15의 결실을 허물고 북남관계파탄과 전쟁위기밖에 가져온것이 없다.

최근에는 폭넓은 대화와 협상으로 오늘의 첨예한 대결상태를 시급히 해소하고 평화와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도전하여 모처럼 마련된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를 위한 예비회담까지 결렬시키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리명박역적패당이 북남래왕과 접촉, 대화와 협력사업을 완전히 가로막고 외세와 함께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은 속에서 민간단체들의 통신련계마저 끊으려는것은 그들이 얼마나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민족의 화합과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는것은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의지이며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자주통일시대의 흐름이다.

피뢰패당이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고있는 민족의 화합과 대화분위기를 눅잦히고 각계층 단체들의 북남련대운동을 질식시키기 위해 발악하면 할수록 온 겨레의 커다란 규탄과 항거에 부딪치게 될것이며 더욱더 심각한 통치위기에 빠져들게 될것이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해내외 온 겨레가 총파산을 선고한 반공화국대결정책을 걷어치우고 외세와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며 각계층의 통일론의와 활동의 자유를 지체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피뢰보수집권세력의 극도에 이른 반통일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100(2011)년 3월 4일
평 양

안팎으로 고립되고 배격받는 대결광신자

남조선통일부 장관 현인택이 입건사를 잘못하여 지금 곤욕을 치르고있다.

지난 2월 21일 현인택은 해외에 나가있는 외교관계인물들을 모아들인 어느 한 모임에서 이 소리, 저 소리 늘어놓던 끝에 우리 공화국과 미국과의 관계문제에 관한 매우 민감한 정보를 루설하였다. 그 정보는 미국이 남조선당국에 알려주면서 절대비밀로 지켜줄것을 요구한것이라고 한다.

현인택에 의해 비밀정보가 공개된데 불쾌감을 느낀 미국은 어떻게 된 일인가고 남조선당국을 다불러댔다. 바빠맞은 청와대고위관계자는 통일부 장관이 비밀을 지킬것으로 믿고 이야기했는데 공개했다고 변명하는 한편 현인택을 겨냥하여 미국과의 《신뢰가 깨질수 있다.》, 《명백히 잘못》이라고 질책해나섰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미국이 앞으로 《정보, 기밀사항을 공유하는것을 꺼릴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이 미국과의 공조에 부정적영향을 미칠가봐 안절부절못하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은 물론 집권세력내부에서도 《아마츄어같은 현인택》이라고 비난조소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현인택이 미국이 알려준 비밀정보를 루설한 목적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로 이어질수 있는 조미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에 훼방을 놓고 북남관계를 계속 파국상태에 못박아놓자는것이라고 분석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의 한 인물도 《북강경정책》을 주도해온 통일부 장관이 《최근 조선반도정세가 대화에로 흘러가자 정보를 흘려 그에 영향을 미치려 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말하였다. 한 야당인사는 현인택의 행동이 북미대화를 차단하기 위한것으로서 명백히 《의도적인것》이며 《못 먹는 감 찔러나보자는 놀부심보》의 발로라고 비난하면서 결국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는 후과를 빚어낼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현인택의 처신에 대해 집권자가 결코 묵과할 일이 아니며 그를 엄중히 처벌할것을 요구하였다.

현인택이 광신적인 대결분자이라는것은 이미 폭로된 사실이다. 그의 동족대결의식이 어느 정도로 뿌리깊은가는 현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 000》을 직접 고안해내고 그 실패가 확증된 오늘까지도 그것을 완고하게 고집하며 정책전환을 거부하고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꿈속에서도 대결을 부르짖는 이런 대결광신자가 통일부 장관자리에 올라앉아있으니 북남사이에 관계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대화와 협력은 또 어떻게 진행될수 있겠는가.

지난해 남조선호전광들이 일으킨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을 걸고 지금 파렴치하게 우리에게 그 무슨 《책임있는 조치와 추가도발방지확약》을 제일 목터지게 떠드는 악질대결분자가 다름아닌 현인택이다. 얼마전에도 그는 지금 필요한 북남대화는 《책임질것은 책임지는 진정성있는 대화》라느니, 이것을 무시하고 《다음단계로 갈수 없다.》느니 하는 고리타분한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대화부정자세를 명백히 드러냈다.

현실은 현인택이 통일부 장관자리에 앉아있는 한 북남대화의 성과적진행은 기대하기 어렵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남조선내의 객관적인 인식이기도 하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꼬일대로 꼬인 북남관계문제를 순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현 사태에 책임이 있는 현인택을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지어 집권세력내부에서도 북남관계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이 부족한 현인택을 갈아치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에서 장관임기는 보통 2년으로 되고있다. 현인택은 2년임기가 다되였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하여 지금 현인택은 언제 자기 목이 떨어질지 몰라 안절부절을 못하고있다. 그러면서도 보다싶이 마지막까지 북남관계에 제동을 걸려고 온갖 못된짓을 다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다른 장관들이 무시로 교체되는 속에서도 현인택이 그런대로 자리를 유지할수 있은것은 현 집권자의 비호가 있었기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조미관계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비밀정보를 마구 루설한데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현인택은 우환거리이다.

민족을 등진 반역자의 운명은 비참하다.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헤덤비는 현인택은 안팎으로 고립되고 미움을 받고있다. 이런자가 오래가면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남조선민심은 현인택에게 이미 정치적사형선고를 내렸다.

현인택은 죽어서도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을 면할수 없다.

본사기자 심 철 영

단평 민심의 심판

며칠전 남조선의 한 신문이 보수《정권》출현 3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응답자의 69.4%가 만일 지금 《대통령선거》를 다시 한다면 현 집권자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 이것을 통해서도 절대다수의 남조선인민들이 현 집권자에게 환멸을 느끼고 등을 돌려댔다는것을 알수 있다.

여론조사결과는 지난 3년간 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을 짓밟으며 매국과 반역으로 민족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보수《정권》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다.

남조선에서 현 집권세력때문에 인민들이 겪는 불행, 우리 민족이 당하는 화는 참으로 막심하다. 친미사대주의와 파쑈적기질, 동족대결광기로 악명높은 반역도배들이 권력의 자리를 타고앉아있으니 도대체 남조선에서 무슨 일이 잘되고 북남관계가 어떻게 개선될수 있겠는가.

얼마전 남조선의 한 야당인사는 보수《정권》 3년동안 사회의 모든것이 수십년전으로 후퇴했다고 하면서 높은 물가와 실업 등으로 민중은 어느 하루도 편안히 못하고 언론장악 등으로 민주주의는 사라졌으며 북남관계도 파거의 대결시대에로 돌아가고있다고 울분을 토로하였다.

보다싶이 남조선 각계는 경제와 인민생활을 파탄시키고 독재통치를 부활시키였으며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현 보수당국을 끝없이 저주하고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은 반역통치에는 반드시 민심의 단호한 심판이 뒤따른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 정 옥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국면을 열어나가자

범민련 남측본부가 강조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가 2월 26일 총회를 가지고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결의문은 현 《정권》의 전쟁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정세가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 곧 핵전쟁과 세계대전으로 번져지게 될것은 불보듯 명백하다고 결의문은 언급하였다. 결의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당국이 위험천만한 전쟁대결정책만을 고집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당국이 북의 성의있는 대화제의에 미국과의 침략적인 전쟁연습으로 대답해나서고있다고 하면서 이를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결의문은 강조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운동을 활발히 벌려 호전세력의 대결책동을 짓부셔버리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것이라고 결의문은 밝혔다. 결의문은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반드시 열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조선학교지원문제해결을 위한 련대투쟁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제도적용을 위한 재일동포들과 일본시민들의 련대투쟁이 전개되였다.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 재일동포들과 《조선학교에도 차별없이 지원적용을 요구하는 네트워크아이찌》 성원들, 일본시민들이 2월 19일 나고야시에서 가두선전활동을 벌렸다.

선전활동에 앞서 진행된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제도적용을 위한 수속을 정지시킨 일본당국의 부당한 조치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조선학교지원문제해결을 위해 일본정부와 문부과학성에 대한 요청활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일본당국의 조선학교차별행위를 규탄하는 구호를 웨치고 삐라를 뿌리며 시위행진을 벌렸다.

또한 2월 26일 일본 효고현 다까라즈까시에서 재일동포들과 일본시민들이 조선학교지원문제해결을 요구하여 단식투쟁을 벌렸다.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다까라즈까시민의 회》 성원 다나까 히로미는 조선학교만을 차별하는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행위라고 하면서 이번 투쟁은 일본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고 말하였다.

이들의 투쟁에 합세하여 많은 재일동포들과 일본시민들이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북침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라

남조선 각지에서 전쟁연습반대투쟁 전개

2월 28일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것과 관련하여 이날 남조선 각지에서 이를 반대하는 투쟁이 전개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는 괴뢰해군작전사령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호전세력이 이번 합동군사연습과정에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감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것은 북남대화의 기운에 찬물을 끼얹는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단체는 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전라북도지역의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가 이번 합동군사연습에 대해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하고있지만 이것은 명백히 북침공격연습이라고 언명하였다.

정당, 단체들은 《방어연습이라는 주장은 이번 연습의 침략성을 가리우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호전세력이 기만행위를 그만두고 침략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인천과 대전, 광주에서도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각계층 단체들의 기자회견과 시위투쟁이 벌어졌다.

⁘ ⁘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진보련대를 비롯한 6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2월 28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의 지휘통제소앞에서 공동집회를 가지고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연습을 규탄하였다.

단체들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와 내용 등으로 볼때 명백히 북침을 노린 공격연습이라고 까밝혔다.

호전세력이 3각군사동맹구축을 위해 합동군사연습에 일본《자위대》까지 참가시키려 하고있다고 단체들은 비난하였다.

단체들은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시대적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호전세력이 이번 연습의 침략적성격을 가리워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다고 하면서 단체들은 온 겨레와 세계에 대한 기만행위를 걷어치우고 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단체들은 동족대결정책을 일삼으며 외세와 야합하여 그 누구의 《급변사태》를 바라면서 전쟁연습에 광분하는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행위를 규탄하였다.

전쟁연습에 광분하는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2월 28일부터 남조선 전지역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북침합동군사연습에 광분하고있다.

남조선은 물론 해외주둔 미군과 남조선괴뢰군, 예비군을 포함한 수십만명의 방대한 병력 그리고 미핵항공모함을 비롯한 각종 전쟁장비들이 합동군사연습에 투입되였다.

북침전쟁연습개시에 따라 남조선의 예비군무력이 사상 처음으로 전방전개훈련에 들어갔다.

호전광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계획인 《작전계획 5027》에 따라 감행되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그 누구의 《급변사태》시 《붕괴》를 목적으로 한다는것을 거리낌없이 공포하였다.

특히 호전광들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에 대량살상무기제거를 전담한 제20지원사령부를 미국본토에서 끌어들여 우리의 핵 및 미싸일제거를 위한 훈련을 지난 시기보다 더욱 확대강화할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북침합동군사연습기간에 미국본토에서 증원된 병력에 보급할 비축장비들의 렬차수송훈련, 경기도 포천에서 스트라이커부대의 실사격훈련, 일본 오끼나와현에 있는 가데나미공군기지에서 대구기지로 병력과 장비를 전개하는 훈련 등도 감행하려 하고있다.

온 겨레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끝내 북침전쟁연습의 포문을 열고 조선반도에 예측할수 없는 사태를 몰아오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의 여러 단체들 기자회견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진보신당과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남조선호전세력이 미국과 야합하여 끝끝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데 대해 단죄하였다.

그 무슨 《급변사태의 종합적대응》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명백히 방어훈련이 아니라 북을 침략하기 위한 공격연습이라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지난해 조선서해에서 일어난 군사적충돌도 군부호전세력의 도발때문에 일어난것이라고 하면서 당국이 조선반도에 군사적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걷어치워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현 당국이 외세와 야합한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고 북과의 대화에 나설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당국의 속심을 폭로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이 론평을 발표하여 미국과의 북침합동군사연습에 광분하는 괴뢰당국의 흉악한 속심을 폭로단죄하였다.

론평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미국의 무모한 북침전쟁각본인 《작전계획 5029》를 실행하기 위한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위험천만한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에 현 《정권》이 정치적목적을 위해 맞장구치고있다고 론평은 비난하였다.

론평은 당국이 합동군사연습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파멸에로 줄달음치는 저들의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꾀하고있다고 까밝혔다.

이 땅에 전쟁위기를 몰아오는 장본인은 미국과 현 당국이라고 론평은 규탄하였다.

론평은 당국이 민중의 생명과 안전은 아랑곳없이 권력유지를 위해 전쟁을 불러온다면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중지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일미합동군사연습소동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올해에 들어와 일본이 미국과 합동군사연습을 뻔질나게 벌리고있다. 새해벽두부터 일본과 미국의 무력은 일본의 규슈섬에 대한 《침공을 격퇴》하는것을 목적으로 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야마 사꾸라》로 명명된 이 군사연습각본은 일본의 4개 주요섬의 하나로서 일본렬도의 남부에 위치하고있는 규슈섬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지원해주는것을 예견하고 짜진것이라고 한다. 로씨야신문 《네자비씨마야 가제따》는 콤퓨터화면들에는 《침략국》의 이름이 밝혀져있지 않지만 지휘소안의 모두에게는 연습이 어느 나라를 념두에 두고있는가 하는것이 명백하다고 하면서 한 미군장교가 미국의 AP통신에 가상적으로는 규슈섬 서쪽에 위치하고있는 큰 나라를 념두에 두었다고 말한것을 전했다. 신문은 규슈섬 서쪽의 큰 나라란 다름아닌 중국을 념두에 둔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다시말하여 일본과 미국의 무력이 감행한 규슈섬주변에서의 맹포격훈련은 중국륙전대의 있지도 않는 《상륙을 격퇴》하는 전쟁놀음이였다.

한편 일본륙상 《자위대》와 미해병대는 미국서해안에서 《외진 섬방위》를 가상한 공동훈련을 2월 9일부터 1개월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있다. 이 공동훈련에서 미해병대부대를 지휘하고있는 군부나부랭이는 《유사시 두 나라 부대가 신속히 대응할수 있다.》느니, 《동아시아지역이 불안정해지고있는 속에서 미일의 부대가 국기를 나란히 하고 훈련을 진행하는것이 가지는 의의는 크다.》느니 뭐니 하면서 《미일방위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훈련에 참가한 륙상 《자위대》를 지휘하고있는 부대장이라는자도 《섬나라인 일본에서 외진 섬방위는 중요한 문제이다. 미해병대와의 훈련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키고저 한다.》고 그에 맞장구를 쳤다.

일본과 미국은 2월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탄도미싸일요격모의연습을 벌리였다.

얼핏 보면 손아래동맹자인 일본이 그 누구의 《위협》을 받고있기때문에 손우동맹자인 미국이 《방위》의 목적밑에 일본과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는듯이 보인다. 하지만 올해에 들어와 년초부터 《일장기》와 《성조기》를 펄럭이며 일본과 미국이 벌려놓고있는 합동군사연습은 《방위》와는 아무 인연도 없는 철두철미 침략전쟁연습이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의 쓴맛을 본지도 반세기를 훨씬 넘고있지만 지금까지 일본을 위협하는 나라는 있어본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미국은 무엇때문에 그 무슨 《방위》를 그처럼 열심히 외워대고있는가.

일본반동들이 떠드는 《외진 섬방위》란 저들의 음흉한 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구차스러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반동들은 륙상 《자위대》의 일부 무력을 미해병대처럼 만들것을 획책하고있다. 그들은 미해병대를 본따 륙상 《자위대》무력을 《수륙량용부대》로 개편하려 하고있다. 《외진 섬방위》를 강화하자면 섬에 앉아서 지키는것보다 빼앗긴 섬을 어떻게 탈환해나가는가 하는것이 더 중요하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륙상 《자위대》무력이 《유사시》 그 누구에 의하여 외진 섬들이 점령되는 경우 이 섬들을 바다로부터 접근하여 상륙 및 탈환하거나 후속부대를 위한 진지를 확보하는 기능을 갖추자면 미해병대처럼 개편되여야 한다는것, 륙상 《자위대》의 《수륙량용부대》재편성을 검토하는것은 불가피하다는것이 일본반동들이 내돌리는 궤변이다.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전후 법적으로 그 어떤 전투무력도 가질수 없게 되여있다. 하지만 오늘 일본 《자위대》는 자본주의세계에서 미국 다음가는 위협한 전쟁세력으로 자라났다.

전쟁하수인인 일본을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전략수행을 위한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속심으로부터 미국은 그 누구의 《위협》나발을 열심히 불어대며 일본에 《평화헌법》수정과 군비확장을 요구하고있다.

군사대국화와 재침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일본은 그에 적극 순응하여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자위대》무력을 미해병대처럼 개편하려는것은 그러한 책동의 일환이다.

일본륙상 《자위대》가 본따려고 하는 미해병대로 말하면 방위가 아니라 공격이 기본이다. 미해병대는 미제의 침략전쟁과 군사적간섭의 돌격대이다. 미해병대는 세계도처에서 군사적간섭과 침략을 감행하는데서 악명을 떨치고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미국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침공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있는 미해병대를 일본륙상 《자위대》가 본따려는것은 그들처럼 해외침략의 길에 뛰여들자는것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일본륙상 《자위대》는 2006년 1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군사연습장에 부대를 파견하군 한다. 이곳에 파견되는 륙상 《자위대》부대는 해안에 상륙하거나 무기와 장구류를 휴대하고 헤염치는것과 같은 가상훈련을 미해병대와 함께 계속해왔다.

재침야망에 환장한 일본반동들은 미제와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과 다른 주변나라들을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을 뻔질나게 벌리고있다. 일본이 지난해 12월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겨냥한 해상합동군사연습을 벌린것은 우연하지 않다. 일본의 언론들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일미가 처음으로 중국을 가상적으로 삼고 진행한 실전연습이라고 평한바 있는 이 합동군사연습에는 미제7함대와 일본항공 《자위대》의 전투기, 해상 《자위대》의 조기경보기가 동원되였다.

일본에서 날로 로골화되는 군국화책동과 일미합동군사연습은 절대로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니다.

오늘 국제사회는 광란적인 일미합동군사연습을 일본이 미제의 침략정책에 편승하여 전쟁마당에 뛰여들어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심상치 않은 군사적움직임으로 보고있다. 미국에 의하여 급속히 재무장된 일본이 해외침략의 포성을 울리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력사적으로 큰 나라들을 등에 업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것은 일본의 고질적인 상투적수법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 《반테로》와 《국제적인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를 부르짖으며 해외침략의 발판을 닦아온 일본반동들은 오늘 어벌이 커질대로 커져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로골적으로 재침의 길로 내닫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지난날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해보려 하는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일본반동들은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책동으로 차례질것이란 죽음과 파멸밖에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리 현 도

조선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여있다고 선언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내외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여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끝내 대규모 전쟁연습을 벌려놓은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담화를 1일과 2일에 여러 나라 통신, 신문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과 관련하여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은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여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의 제도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는것이 다시금 실증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킴으로써 그를 구실로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완성하고 이 지역전반에 대한 군사적패권을 확립해보려 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또한 현 남조선당국이 자기의 대결정책을 합리화해야 할 정치적부담에 시달리고있다고 까밝혔다.

조선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려는 일념으로부터 대화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전제조건없이 필요한 대화들을 가능한껏 성사시키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는 대세의 흐름과 완전히 배치되게 또다시 대규모적인 북침전쟁연습을 벌려놓은 미국의 강권적인 처사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정당방위를 위한 조선군대의 물리적대응이 불가피해지고있으며 모처럼 마련되고있던 대화와 긴장완화의 기회가 사라져가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저들이 감행하는 군사적도발이 초래하게 될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나라의 《인민일보》, 《베이징일보》,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 신문 《로씨스까야 가제따》, 프랑스의 AFP통신, 일본의 교도통신도 《조선 대화에도 전쟁에도 다 준비되여있다》 등의 제목으로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담화의 요지를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조선인민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웰남, 라오스, 타이, 몽골, 이란, 인디아, 도이췰란드, 영국, 프랑스, 벨가리아, 오스트리아, 기네, 에티오피아, 리비아, 뻬루, 중국 심양과 홍콩, 로씨야 나호드까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와 제네바유엔사무국 및 국제기구주재 우리 나라 상설대표부,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부에서 2월 9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연회, 도서,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으며 그앞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이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행사장들에 전시되여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백두산총대로 빛나는 조국》, 《조선의 신념》, 《강성대국의 불보라》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는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부 상임부부장, 외무상조리, 웰남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보건상, 국방성 부상, 외무성 부상, 타이조선친선의원단 위원장과 서기장, 몽골 국가대회의 의원들, 대통령안보담당고문과 대외관계성, 국방성 국무비서들, 이란무력총지휘참모부 부총참모장, 《로동자의 집》 총서기, 인디아외무성 동아시아국 련합비서, 국민대회당, 공산당(맑스주의) 지도부 성원들, 도이췰란드재정성 국무비서, 련방의회 의원들, 영국국회 상원의원, 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대변인(당수), 프랑스국회 상원의원,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 중앙위원회 국제비서, 벨가리아외무상수석고문, 오스트리아련방경제회의소 부소장, 기네인민련합 총비서, 에티오피아인민혁명민주전선 대외관계부장, 리비아대외련락국제협조비서국 아시아담당비서, 뻬루 새로운 좌익운동 위원장, 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 중국 료녕성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의례국, 홍콩주재 중국외교부 특파원공서 일군들, 로씨야 나호드까시, 빠르찌잔스크시, 포끼노시, 아르쫌시행정부와 의회일군들, 미국로동자세계당, 12월12일운동 지도부 성원들 등 각계 인사들, 해당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그리고 제네바유엔사무국 총국장,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부리사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지역기구 대표들이 초대되였다.

우리 나라 대표부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부 상임부부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난 기간 형제적조선인민은 존경하는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주석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2011년에도 조선인민이 모든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더욱 분투하리라고 확신한다.

이란무력총지휘참모부 부총참모장은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무력으로 장성강화되였다고 격찬하였다.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계승완성의 근본담보를 마련한것은 조선인민의 커다란 행복이라고 강조하였다.

기네인민련합 총비서는 영웅적조선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예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중국 료녕성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은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실현하는것을 자신의 필생의 사명으로 여기신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는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로씨야 나호드까시의회 부의장은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신날까지도 인민들을 찾아 멀고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다, 그이께 있어서 이것은 생활습관으로 굳어졌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스승으로 여기시며 인민들은 그이의 사상과 뜻을 결사관철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제네바유엔사무국 총국장은 조선은 정치적안정을 보장하고 사회의 일심단결을 확고히 이룩한 나라이다, 이것은 김정일각하의 령도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그 무엇으로써도 자기 령도자에 대한 조선인민의 신뢰심을 허물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본사기자

조선꾸바단결위원회 년차회의 진행

조선꾸바단결위원회 년차회의가 3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조선꾸바단결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진 교육위원회 위원장, 문재철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조선꾸바단결위원회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호쎄 마누엘 갈레고 몬따노 주조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꾸바공산당의 령도밑에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면서 사회주의기치따라 나아가고있는 꾸바인민과의 친선단결을 위한 위원회의 지난 1년간 사업정형이 총화되고 올해활동계획이 토의되였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회의 개막

【베이징 3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제11기 제4차회의가 3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였다.

호금도동지를 비롯한 중국의 당과 국가지도간부들이 개막회의에 참가하였다.

가경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이 회의에서 사업보고를 하였다.

그는 보고에서 지난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애국주의와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단결과 민주주의라는 2대주제를 틀어쥐고 사업함으로써 량안관계의 평화적발전을 촉진하며 대외친선교류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말하였다.

2011년은 중국공산당창건 90돐이 되는 해일뿐아니라 제12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해라고 하면서 그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올해에 과학적발전을 추동하고 경제발전방식을 다그쳐 전환하는것을 자기 직능리행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것을 마땅한 책임으로 여기고 정치협상을 잘하여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의 전면적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부의 과업에 대해 언급

우간다대통령 요웨리 카구타 무쎄베니가 2월 25일 수도에서 진행된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정부의 과업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정부가 앞으로 5년동안 부정부패행위와의 투쟁을 중요사업의 하나로 틀어쥐고나가며 새로운 일자리를 조성하는데 힘을 넣을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교육, 보건시설들을 개선하고 도로, 철도 등 기초시설건설을 힘있게 다그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스라엘수상의 망발 규탄

팔레스티나민족당국 공보성이 2월 27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수상의 망발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스라엘수상이 팔레스티나가 유태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장래의 팔레스티나국가국경문제에 대하여 토의할수 없다고 제창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은 이스라엘당국이 평화를 바라지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으로서 이스라엘의 극악한 인종차별정책의 연장이라고 비난하였다.

서방의 그릇된 처사를 비난

이란외무상 알리 아크바르 쌀레히가 2월 26일 한 외교석상에서 자기 나라의 핵활동에 대한 서방의 그릇된 처사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서방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핵문제는 묵인하면서 이란의 핵계획에 대해서는 시비하는 이중기준적인 정책을 추구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서방은 이란의 핵계획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다고 까밝히고 그는 이란정부는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 가질 준비가 되여있다고 언명하였다.

본사기자

중국의 《인민일보》가 미국의 중국군사위협론을 배격

중국의 《인민일보》가 최근 《미국의 새 〈국가군사전략보고서〉는 중국을 겨냥한것인가,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협하고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서방세계의 군사현대화가 중국을 훨씬 앞서고있는데 어째서 서방은 유독 중국에 대해 차별시하고 모독하는것인가고 반문하고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미국의 최신형 《F—22A 랩터》 스텔스전투기도 이미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비되였다. 그러나 중국이 갓 시험비행한 《섬—20》비행기에는 미국과 주변나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감투가 씌워지고있다.

미국의 항공모함집단은 중국의 문앞을 포함한 세계각지에서 마음대로 돌아치는데 중국의 발전에 부합되는 방위력은 오히려 항해의 자유권을 방해한다는 중상을 받고있다.

신문은 이것이야말로 《제가 불놓는것은 일없고 남이 초불을 켜는것은 안된다.》는 횡포한 론리가 아니겠는가고 조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중국에서

○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지난 5년동안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간 자치구적으로 빈곤자수가 46만 2 000명 감소되였다.

○ 중국 내몽골자치구에서 지난해 139만 7 100명의 농촌주민들에게 깨끗한 먹는물을 공급할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계획을 넘쳐 수행한것으로 된다.

이 기간 자치구에서는 농촌지역들에 1 277개의 먹는물공급시설을 건설하였다.

○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에서 올해 의무식수활동을 통해 350만무의 림지를 조성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이에 따라 9 000만그루의 각종 나무를 심게 된다.

자치구에서는 지난 30년동안 연 5억 6 000만명의 각계층 주민들이 의무식수활동에 참가하여 총 35억 6 000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 중국 천진항에서 지난해 4억 1 300만t의 화물을 처리하였다.

항에서는 2015년까지 년간 화물처리량을 5억 6 000만t에 이르게 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의 청도항

반감을 자아내는 체신소폐쇄소동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체신과 많은 련관을 가지고 살아오고있다. 편지, 소포, 송금, 출판물배포 등 체신기관의 모든 사업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때문에 리윤추구가 기본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나라인 미국에서조차도 수지타산이 안맞는다는 리유로 체신소를 함부로 폐쇄할수 없다고 련방법에 명기되여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휴지장이나 같다. 최근 미국우정공사가 수천개의 체신소들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는 사실을 놓고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미국 전지역에서 이달부터 시작하여 2 500개의 체신소를 폐쇄할것이라고 한다. 그 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체신기관들에서 적자가 나 경영손실을 본다는것이다. 지금 미국에는 체신소가 3만 2 000개정도 있는데 그중 절반에 달하는 1만 6 000개의 체신소들이 적자로 하여 허덕이고있다고 한다. 지난 회계년도에 미국의 체신부문에서는 85억US$의 손실을 보았다. 올해에도 이 부문의 적자규모가 70억US$이상에 달할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있다.

하루라도 빨리 경영위기에 처한 체신소들을 폐쇄하고싶은것이 미국우정공사의 심사일것이다. 그렇다고 법조항을 무시하고 무턱대고 체신소들을 폐쇄할수도 없는노릇이다. 그래서 생각해낸것이 수익성에 다른 리유로 체신기관을 유지할수 없으면 폐쇄할수 있다고 규정한 또 다른 법조항을 턱대고 체신소들에 대한 폐쇄조치를 취하자는것이다.

착취계급의 의사를 반영한 자본주의법자체가 그들의 리해관계를 대변하여 빠질 구멍을 교묘하게 만들어놓은것이다. 실지로 미국우정공사가 그러한 법률적공간을 리용해 먹고있다.

미국우정공사당국은 이번에 체신소폐쇄기준을 직원이 5명이 안되고 하루에 8시간이 못되게 문을 여는 곳 등으로 규정하였다. 얼핏 보기에는 실리적이고 아주 간단한것 같지만 이런 정리대상을 종합하면 수천개나 된다고 한다.

이번 체신소대량폐쇄조치로 하여 미국의 민심이 뒤숭숭해지고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대도시들의 중심지에 있는 체신소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시골이나 교외지역에 있는 체신소들은 언제 문을 닫을지 몰라 몹시 불안해하고있다고 한다. 이런 체신소들의 직원들과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빠지고있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당장 실업자로 전락될 운명에 처한 체신소직원들도 문제이지만 주민들의 경우 우편물을 시급히 처리해줄곳이 없어지게 되였으니 어찌 불만을 표시하지 않겠는가.

특히 시골같은데서 체신소가 폐쇄되면 현지 주민들, 더우기는 로인들이 큰 불편을 느끼게 될것이라고 한다.

지난해에 있은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미국인 10명중 6명이상이 체신소폐쇄를 반대하였다. 이런 실정으로 하여 미국회에서도 체신소폐쇄조치문제가 은밀히 다루어졌다고 한다.

평민들의 생활상고충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본가계급의 리익만을 우선시하고 절대화하는 미국의 이런 반인민적이고 불평등한 사회제도하에서 광범한 근로대중의 고통과 불행은 나날이 더해만 가기 마련이다.

부르죠아정객들과 어용나팔수들이 《만민복지》, 《만민평등》을 입이 닳도록 제창하는 미국사회의 현실은 바로 이렇다.

본사기자 전 영 희

달리할수 없는 하수인의 비굴한 선택

얼마전 오끼나와에 찾아간 일본외상이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와 관련한 강연을 하였다. 여기서 그는 선거공약과는 달리 정부가 후덴마미군기지이설지를 오끼나와현내로 정한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느니, 일본을 둘러싼 《안보》상황이 주일미군기지의 존재가 가지는 의의를 강조하고있다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였다. 이것이 후덴마미군기지의 현외 또는 국외이설을 요구하는 오끼나와의 민심을 등지고 미국의 강박에 순응한 일본정객들의 구차스러운 변명에 불과하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문제는 저들의 선거공약을 줴버리고 민심의 요구를 외면한 일본당국의 그러한 처사가 미국의 손아래동맹자, 가련한 하수인의 피할수 없는 선택이라는것이다.

일본에서 오래동안 론의거리로 되여오고있는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는 단순한 군사기지이설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미국과의 종속적동맹관계에 얽매여 대미굴종행위를 일삼아오고있는 일본이 상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기의 주견을 가지고 독자적인 정치를 펼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늠해볼수 있게 하는 시험대와 같은것이다. 2009년 9월 국회 중의원선거에서 종속적인 미일관계를 《대등한 일미관계》로 만들것을 주장해나선 민주당이 선거자들의 지지를 받아 반세기가 넘는 자민당의 장기집권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집권한것은 대미리탈을 지향하는 일본인민들의 감정을 엿볼수 있게 한 계기였다.

새로 발족된 민주당주도의 하또야마정부내에서는 미국과의 수직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들이 표면화되였다.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는 그 대표적실례였다.

원래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는 일미 두 나라 정부가 주동적으로 들고나온 문제가 아니였다. 이 문제는 온갖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는 주일미군기지철폐를 요구하는 오끼나와현민들을 비롯한 일본민심에 의하여 제기되게 되였다. 일본을 저들의 속국처럼 여기며 좌지우지하던 미국이였지만 일본의 민심을 무시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리하여 일미는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를 흥정거리로 삼게 되였다. 하지만 그것은 오끼나와현민들의 반미감정을 눅잦히기 위하여 일미가 연출한 일종의 기만극이였다. 미국은 오끼나와의 민심을 고려하는척 하면서 이곳에 있는 일부 미군기지를 대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범위가 더 크고 기능이 대폭 강화된 새로운 미군기지들을 군사전략상으로 보다 유리한 현내의 다른 지역에 건설하려는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였다.

미국의 의사에 맞게 자민당집권시기 미일사이에는 후덴마미군기지를 오끼나와현내에 이설할데 대한 합의가 이룩되였다. 이것은 후덴마미군기지를 현외나 국외로 옮길것을 강력히 주장하여온 오끼나와현민들의 의사와 요구에 완전히 배치되는것이였다.

이전 일본수상 하또야마가 후덴마미군기지이설지를 오끼나와현외나 국외로 할것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것은 바로 그때문이였다. 하또야마정부는 발족후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를 민심의 요구를 고려하여 처리할것을 주요과제로 내세우고 미국에 절충안을 내놓기도 하면서 제법 뻐대있는 소리도 하였었다. 당시 일본의 대미리탈움직임을 두고 미국의 한 정세전문가는 일본의 새 정권이 대미정책을 크게 변화시키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하또야마정부는 그렇게 할만한 선택의 여지도, 정치적인 자본도, 재정적인 힘도 충분히 가지고있지 못하다라고 예평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판단은 빗나가지 않았다. 하또야마정부는 미국의 강박에 굴복하여 태도를 바꾸어 후덴마미군기지이설지를 오끼나와현내에 정하기로 상전과 합의하였다. 민심을 배반한 하또야마정부는 집권한지 9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종말을 고하고말았다. 하또야마정부와 교체된 간 나오또정부도 미국의 의사와 요구를 따르는 립장을 취함으로써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를 자민당집권시기 일미사이의 합의점으로 되돌아오게 하였다. 이것은 국제사회에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수 없는 일본의 정치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은 일본을 저들에게 맹종맹동하는 하수인으로 길들여왔다. 력사적으로 큰 나라를 등에 업고 제 리속을 채우는데 버릇되여온 일본은 미국의 겨드랑이에 붙어 상전에 대한 아부굴종과 추종을 일삼아왔다. 대미추종과 굴종은 일본정치의 본태이며 고질적인 악습이다. 이것을 떠난 일본정치란 있을수 없다.

대미리탈은 일본의 민심이다. 그러나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모든 일이 민심이 바라는대로 되는것이 아니다. 민심을 등진 일본의 정치는 력대적으로 미국의 비위를 맞추고 상전의 지휘봉에 따라 운영되여오고있다. 이러한 정치방식은 자민당집권시기나 민주당집권시기나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일본의 정객들이 저들의 정치적잔명을 미국상전에게 의존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일본은 싫든좋든 미국상전의 의사와 요구를 따르는 길밖에 다른 선택이란 있을수 없는것이다.

외세에 쫓기여 제 집안일도 독자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일본이 그 주제에 《자주외교》를 곧잘 외워대며 정치대국으로 둔갑하여 세상만사에 코를 들이밀려 하는것은 사람들을 웃기는 정치난쟁이의 꼴불견이다.

본사기자 배 금 희

ㄱ-11043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 집 위 원 회